

청·장년 책별 성경공부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토마스 브리스코 (Thomas V. Brisco)

자넷 버튼 (Janet Burton)

단 가너 (Don Garner)

데이빗 화이트 (David White)

브래드 윌리엄슨 (Brad Williamson)

데이빗 라이트 (David Wright)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판권소유 © : 2009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표준새번역, 2001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운영위원

주총회(BGCT) 회장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선교, 전도 및 목회사역 부장 : 웨인 셰필드(Wane Shuffield)
성경공부 / 제자훈련 부장 : 데니스 패럿(Dennis Parrott)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한국어 집필위원

에베소서 학습공과 (1 과 ~ 7 과) 번역
최승오 (새누리침례교회)
골로새서 학습공과 (8 과 ~ 11 과) 번역
이재형 (뉴송침례교회)
골로새서 학습공과 (12 과 ~ 13 과) 번역
김승시 (한우리침례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학습공과 (1 과 ~ 13 과) 편집
최승오 (달라스새누리침례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09년 4월

패티 레인(Patty Lane): BGCT 상호문화 사역개발부장
넬다 P. 윌리엄스(Nelda P. Williams): 커리큘럼 개발부 고문 및 매니저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의무이다. 이 교사용 공과는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최대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각 수업마다, 당신은 성경공부와 준비에 도움을 주는 교사를 위한 ‘**성경주해**’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주해**’ 는 ‘성경적 배경이해’ 와 ‘성경해석’ , 그리고 ‘중심 의미’ 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적 배경이해’ 는 공부하게 될 본문 성경의 배경과 전체적인 본문의 요약을 제공한다. ‘성경해석’ 은 핵심본문의 주석을 한 절마다 제공한다. ‘중심의미’ 는 핵심본문의 의미와 적용을 도와줄 것이다.

각 과의 두 번째 부분은 ‘**학습계획**’ 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철저한 ‘**학습계획**’ 을 세웠다. 첫 번째는 ‘다양한 학습활동’ 이며, 두 번째는 ‘강의와 질문’ 이다. 당신과 당신의 수업에 가장 잘 맞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 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 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 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 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토마스 브리스코 는 에스라서의 1-2 과, 느헤미아 6-11 과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주석을 썼다. 브리스코 박사는 락스던 신학교와 하딘시몬스 대학교의 신학교에 학장으로 섬기고 있다. 전에 그는 베일러 대학교와 서남침례신학원, 과치타 침례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는 많은 교회에 임시담임목사로도 섬겼다. 그는 또한 출애성경지도의 저자이기도 하다.

단 가너 는 학개 3 과, 스가랴 4-5 과, 말라기 12-14 과에 대한 주석을 썼다. 가너박사는 테너시에 제퍼슨시 카슨-뉴만 대학에서 구약과 성서고고학을 가르친다. 그는 여러교회에서 목사, 임시 담임목사, 성경교사, 수양회 강사 등으로 섬겼다. 여러 그의 집필중에 단은 가이드포스트 잡지를 통해 배부된 에스라, 느헤미아, 에스더에 관한 주석을 썼다.

데이빗 화이트 는 에스라 1-2 과에 대한 교안을 썼다. 그는 마셜 텍사스에 있는 동텍사스침례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구약, 신약등을 가르친다. 화이트박사는 오클라호마출신이다. 그는 포트워스 텍사스에 있는 서남침례신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그와 그의 아내 브렌다는 롱뷰 텍사스에 있는 제일침례교회 회원이다.

데이빗 라이트 는 학개와 스가랴 3-5 과를 위한 교안을 썼다. 그는 오클라호마 털사에 살고 거기에서 화법과 토론을 가르친다. 텍사스 큰우물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휴스턴, 웨이코, 털사에서 청소년목회자, 협동목사, 목사로 섬겼다.

브레드 윌리엄슨 은 느헤미아 6-11 과에 교안을 썼다. 윌리엄슨 박사는 텍사스 파사디나에 남부중앙침례교회에 교육목사이고 락스던 신학교에 겸임교수이다.

자넷 벌튼 은 말라기 12-14 과, 부활에 관한 과를 썼다. 그녀는 텍사스 어스틴에 살고 기독교 교육가, 저자, 협의회 지도자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두 책을 썼으며 경험이 많은 저자이고 침례교의 길 출판사에 여러가지 글들을 썼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2

단원 1.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공부할 날짜

제 1 과	_____	새로 시작하기8 (에스라 1 장)
제 2 과	_____	예배에 기초를 놓기16 (에스라 3:1-7, 10-13)

단원 2 .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제 3 과	_____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 두기24 (학개 1:1-11; 2:1-9)
-------	-------	---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제 4 과	_____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32 (왕상 15:9-19; 16:29-33)
제 5 과	_____	10 가지 격려의 말41

단원 4. 느헤미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제 6 과	_____	일을 처리하기51 (느헤미야 1 장)
제 7 과	_____	신중한 계획과 착수.....59 (느헤미야 2 장)

제 8 과	_____	비판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	68
	(느헤미야 3:1-12; 4:1-6)		
제 9 과	_____	신실하게 행동하라.....	76
	(느헤미야 5 장)		
제 10 과	_____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기	84
	(느헤미야 7:73b;8:1-4a, 9-18)		
제 11 과	_____	하나님께 감사.....	92
	(느헤미야 12:27-43)		

단원 5. 말라기: 질문과 대답

제 12 과	_____	우리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100
	(말라기 2:17 - 3:5)		
제 13 과	_____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하실까?.....	107
	(말라기 2:17 - 3:5)		
제 14 과	_____	왜 우리는 회개해알 할까?.....	115
	(말라기 3:6 - 12)		
부 활 절	_____	주님을 보라!	123
	(요한복음 20:1-18)		

<p>[제 1 과]</p>	<p>새로 시작하기</p>
<p>핵심본문 에스라 1 장</p> <p>배경 에스라 1 장</p>	<p>학습주제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 조급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p> <p>탐구질문 오늘날에는 어떠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가?</p> <p>학습목표 어른들에게 어떻게 유다 사람들의 귀환 사건이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가를 설명하고, 그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알게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 과는 주전 538 년에 유다 민족의 초기 귀환 부터 주전 400 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두번째 기간을 다스리게 되는 시기의 끝까지 유다 민족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성서 학자들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이 시기를 일컬어 추방 후 시대라는 말을 쓴다. 에스라서는 처음 두 과에 해당하는 본문이다. 이 후에 나오는 6 과 (제 4 단원)부터 우리는 느헤미야를 공부할 것이다.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유다 사람들의 존재 자체와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때의 시기를 잠시 간단하게 보여준다.

진실로 유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고 있었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언약의 관계에 돌아오며, 그 땅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셨다.

단원 1.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것은 이 책들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바벨론 사람들은 주전 587-586년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멸망시켰다. 이 처참한 사건은 유다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산산조각 내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다가왔다. 유다 사람들의 반항에 대한 보복으로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중 몇 무리들을 추방을 시켜서, 바빌론의 여러 도시들에 그들을 정착하게 했다 (예레미야 52 장, 에스겔 3:15 을 참조한다- 주전 597 년, 586 년, 582 년에 주요한 강제 추방이 일어난다). 그 결과 추방 즉 망명 기간이 시작된다. 바빌론에 사는 유다 포로들의 삶의 여건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지정된 도시에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허락했고, 유다 민족들은 번성해갔다. 그러나 포로들은 그들의 선조의 땅으로 돌아갈 기회를 갈망했다. 이들이 이 시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흘린 슬픔의 눈물들이 시편에 나와있다.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시편 137:4) 그러는 중 유다 땅에 남아있던 유다 민족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황폐화되고, 속국이 되어버린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발생한 영적인 위기는 유다 민족이 중요한 질문들을 긴박하게 스스로에게 해보게 하는 역할을하였다. 왜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포기하셨으며, 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포기하셨는가? 유다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는가? 유다 민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민족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들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 주시려 몇몇의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러한 재앙은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처벌이다 (예레미야 7:1-34; 1-11; 에스겔 5:1-17).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사야 40-55 장에 나타난 예언들과 더불어 예레미아서와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담고있다. 망명 생활을 끝이 날 것이고, 유다 민족은 자신들의 선조의 고향으로 돌아오며, 성전은 재건축될 것이다.(렘 29:10-14; 30:1-24; 31:1-25; 33:1-13; 겔 37:1-28; 40:1-44; 31; 사 40:1-11; 43:1-7; 44:24-28; 49:1-13)

이러한 약속들은 기원전 539 년에 고레스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뒤, 바빌론에 의해 추방 되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하는 정책을 세웠을 때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 (에스라 1:1-4 주석 참조). 주전 538 년에 시작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이끈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까지 위험한 여행을 했고,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수 있도록 하는 힘든 작업들을 시작했다 (에스라 1:5-11 주석 참조). 귀환한 사람들은 심각한 반대를 극복해야했고 그 과정중에 낙심하는것을 경험해야했다. 학개와 스가랴선지자의 격려로 (3-5 과)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주전 516년에 봉헌이 되었다. 하지만 영적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말라기선지자는 주전 480년에 말씀을 전하며 유대인들의 믿음없는 행동과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을 책망했다 (12-14과).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등장한 때에는 유다는 새로운 시작을 절실히 갈망했다. 에스라는 모세의 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었고 (에스라 7:6) 그는 바빌로니아에서 추방자들중의 한 무리를 이끌었다. 유대의 전통은 에스라를 제 2의 모세, 즉 사람들을 불러 시내산에서 세운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게 한자 (출애굽기 19-20)라 여겼다. 에스라는 많은 무리앞에서 법을 읽었고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길들로 재헌신하기를 독려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1세 왕 (주전 465-425)의 지명을 받아 느헤미아는 유대지방에 총독으로 두번을 섬겼다. 그는 예루살렘의 벽을 재건했고 주민들의 외적인 안전을 책임졌으며 유대나라에 성실성을 회복하는 정치, 종교개혁을 집행했다 (6-11과).

새로운 시작의 시간: 고레스 왕의 명령 (칙령 1:1-4)

1:1 역사적인 상황: 에스라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때에 시작하며, 고레스 왕의 정복은 고대역사에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온다. 고레스왕은 현재의 이란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왕국인, 안산왕국의 왕이었다. 그는 주전 550년에 미드족속을 정복하고, 연이은 침략전쟁으로 페르시아왕국을 세운다. 서쪽 터어키에 위치한 리디아 왕국은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주전 546년에 멸망하며, 바벨로니아 도시도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므로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간 거대한 세력의 (바벨로니아 왕국) 멸망을 가져온다. 고레스왕은 그가 죽은 주전 530년까지 가장 큰 왕국을 건설했다.

에스라서 1:1 절의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왕의 통치의 첫해는 주전 539년이며, 그 년도가 고레스왕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해이다. 이 정복으로 인해 유대인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중요한 칙령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고레스왕의 정복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했고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었다. 이사야는 고레스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자라 묘사한다 (이사야 45:1). 이 선택하신자라는 것은 히브리말로 구세주 혹은 해방자라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사야서 45:1 에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이단어가 쓰인 유일한 때이다.

단원 1.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하나님께서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에스라 1:1)는 표현은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국의 시기를 끝내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기위한 역사적인 조건들을 만드셨다 (이사야 44:28).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사건들은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예레미아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추방생활에서 돌아오게 허락하시기 전에 바벨로니아 왕국에서 70년간의 포로생활이 경과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예레미아 25:11; 29:10; 역대하 36:21 을 참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70 이라는 숫자를 완벽한 숫자, 즉 하나님의 섭리가운데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이 다했을 때 라는 의미를 전하는 방법으로 이해해야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진실로, 예언자들이 약속한것처럼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었다. 의심과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왕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여시는 것이었다.

1:2-4 왕의 명령. 이 구절들은 고레스왕이 주전 538년 경에 공포한 칙령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칙령은 성경에 에스라 6:2-5와 역대하 36:22-23 이 두 군데에서 나온다. 그 칙령의 세가지 다른 표현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나 변형들은 그 칙령이 사용된 의도나 칙령을 듣는 다양한 사람들을 나타낸다. 우리의 본문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모임장소 에서 읽혀지기위해 의도된 왕의 선포인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에스라서 6장의 것은 엑바타나에서 왕의 유물에 보관된 공식문서였다. 이 엑바타나라는 곳은 미디안 왕국의 전의 수도였고 페르시아의 중요한 행정 중심지이었다.

그 칙령은 유명한 “고레스왕의 실린더” (문서의 이름)와 같은 현존하는 왕의 문서들에서 발견된 고레스왕에 의해서 실행된 일반적인 정책을 보여준다. 반항적인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지역의 성전들을 약탈했던 바빌로니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레스는 조금더 인간적인 정책, 즉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됐던 사람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그는 또한 성전을 재건하기위해 왕실의 도움도 제공했다 (에스라 6:4 참조). 이러한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고레스는 큰 왕국에서 지역사람들의 지지와 순종을 얻기를 희망했다. 우리는 그 칙령이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권리를 주게한것을 볼 것이다.

1:2 절에,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밝혀진다. 이 표현은 페르시아왕족의 직함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드문 표현이다. 이러한 직함의 사용은 이 칙령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주인이 그로하여금 칙령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은 이 직함 (주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 즉 포로생활후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범위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빈번히 사용했다.

1:3-4 에서는 칙령이 추방자들에게 두가지 권리를 부여한다: (1) 성전을 재건하는 것 (2) 선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고레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명하셨다 (1:2-3). 우리는 고레스왕이 왕실의 재정으로 성전을 건축할 자재를 구입했다고 알게된다 (6:4). 고레스는 또한 추방생활을 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유대땅으로 돌아가서 성전건축을 돕는것을 허락한다. 이러한 특권은 바빌론에만 아니라 왕국의 모든 곳에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었다 (1:4).

유대인 모두가 유대땅으로의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기로 선택한것은 아니었다. 칙령에 의하면 살던 곳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즉 가족이나 다른 필요한것과 성전을 위한 자발적인 헌금들을 공급함으로, 도와야했다 (1:4).

고향으로 돌아가기 (1:5-11)

1:5. 하나님께서 고레스왕을 촉구하여 (“감동시켜”) 칙령을 발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저자는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히 사람들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스러운 계획에 근거한다고 강조한다. 귀환한 사람들은 추방되기전에 남부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사람들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아버지의 가족의 우두머리” 와 함께 돌아왔고, 가족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단위를 형성하는 대가족들중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일반지도자들과 성직자들도 귀환했다는 것이다.

1:6. “이웃사람들” 라는 표현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추방자들을 도와준 이방이웃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귀한 철, 가죽, 물건들, 그 밖에 다른 귀한 것들을 자발적인 헌물로 주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러한 행동들과 출애굽시대에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백성에게 이집트사람들이 물건들을 베푸는 행동과 가까운 일치를 지적한다. (출애굽기 3:21-22; 11:2; 12:35-36). 저자는 유대로 돌아가는 것을 두번째의 출애굽, 또 하나의 유대민족의 시작이라 나타낸다.

단원 1.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1:7-11. 이 구절들은 성전에서 사용된 그릇들도 다시 돌아옴을 말한다. 느브갓네살왕이 통치하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전을 주전 597 년과 586 년에 회파했고 성전에 예배때에 사용되는 금, 은, 동의 그릇들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약탈해갔다 (왕하 24:14-25:15; 역대하 36:6-10). 느브갓네살왕은 이러한 그릇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바빌로니아 성전에 보관해서 바벨론의 신들이 유대민족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았다 (역대하 36:7). 벨사살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하기 전에 밤에 신비한 손가락을 보았을때 이 용기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니엘 5:2-3).

고레스왕은 이 성전 그릇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가는데에 선물로 세스바살에게 주었다. 세스바살이 유대로 첫번째 사람들의 무리를 데리고 갈때에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학자들은 한때는 유대의 왕자라는 직함은 세스바살이 다윗의 혈통을 계승함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더이상 넓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에스라 5:13-16 은 우리에게 고레스왕이 세스바살을 아마도 유대인의 통치자로 임명해서 그가 성전의 기초를 놓게 지명한 것을 전한다. 우리는 세스바살의 운명을 모른다. 그는 주전 538/537 년후에 여롬바벨의 도착전에 장면에서 사라진다 (2과 참조).

9-10 절은 여행을 할때 세스바살에게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맡겨진 5400 개의 그릇에대한 부분적인 묘사이다. 그 물건들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기구를 포함한다 (식기, 접시, 아마도 술잔: 다른 구절들은 성전의식에서 사용되는 놋으로 된 촛불을 끄는것과 삼도 있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그릇들의 반환은 추방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을 것이다. 성전은 다시 지어질 것이고 수십년전에 약탈된 성스러운 그릇들로 장식될 것이다. 절망의 긴 밤은 과거속으로 사라지고 유대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극단적인 새단장이라는 티비쇼를 보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그 쇼가 어떠한 내용인지 말하게 한다 (가족들은 그 가족의 필요를 채울수 있는 새롭게 개조된 집을 선물받는다. 이것은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준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것을 지적하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대민족에게 사실이였다.
2. 이 공부는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아, 말라기서를 포함한다고 알린다. 공부를 위한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학습지도란에 나오는 “에스라서, 학개서, 스가랴, 느헤미아, 말라기-미래의 회복의 개관”에 “미래의 회복”으로 부터의 정보를 이용한다. 이 공부는 유대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인 에스라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학습지도란에 있는 에스라서의 단원 개관을 정리해준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아, 말라기의 연대기적 개요의 도표를 언급한다.
3. 이 과의 제목 “새로운 시작을 만들며” 를 칠판에 쓴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인가? 반원들이 응답할수 있는 시간을 준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하나의 예를 보일수 있나? 하는 질문으로 대답들을 유도한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되는것, 혹은 예수님께 다시한번 헌신하는것, 결혼하는것, 가족중 한명의 죽음에 적응하는것, 새로운 직장을 갖는것,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것, 은퇴하는것 등등).

학습인도

4. 학습지도안에 있는 주제, 학습목표, 생각해볼 질문들을 언급한다.

단원 1.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5. 에스라서는 역대하 바로 다음에 있는 책이라 말하며 성경공부반원들이 에스라서를 찾는 것을 돕는다.
6. 에스라 1:1-4 을 읽는다. 학습지도안에 정보와 본문을 설명하는 교사지침서의 성경주석을 이용한다. 그리고 반원들에게 묻는다. 누가 고레스왕의 마음을 움직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이 공포를 하게했다 1:1-2). 고레스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유대인을 허락해서 가게한것을 주목한다. 고레스왕과 다른사람들도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질문을 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위해 쓰임을 받는것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는가?
7. 에스라서 1:5 을 읽는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선포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반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기위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반원들이 이야기할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8. 에스라서 1:6-11 읽도록 한사람을 지명하라. 학습지도안에 “성전의 그릇들”이라는 짧은 글을 언급한다. 5400 금, 은으로된 물건들이 성전에서 쓰이기 위해 반환된다.

적용격려

9. 학습지도안의 사례를 언급한다. 그 사례를 읽고 해결책들을 묻는다.
10. 질문을 한다. 이 본문은 당신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는가?
11. 새로운 출발을 하는것은 흥미진진한 일이지만, 또한 용기와, 현명함, 힘을 요구한다. 질문을 한다. 어떠한 손해를 본상황이나 어려움뒤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수 있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원들은 어떠한 것인가? 반원들에게 이러한 자원들이 당신이나 혹은 가족중 누군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로움을 주었는가를 나누도록 시간을 주자.
12. 기도로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이 열리도록 간구하자.

<p>[제 2 과]</p>	<p>예배에 기초를 놓기</p>
<p>핵심본문 에스라 3:1-7, 10-13</p> <p>배경 에스라 3 장</p>	<p>학습주제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장려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그렇게 할수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에 드리며, 또한 어느 정도까지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크게 격려할 수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 공부의 1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유대민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셨나를 살펴보았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고 일하시고 계셨다. 에스라서 1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왕을 사용하셔서 유대포로들이 그들의 선조들의 땅으로 힘들지만 기쁘게 돌아올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셨나를 보여준다. 주후 538년후에 세스바자는 유대인들이 선조들의 유산을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하도록하기 위해 한 무리의 유대사람들을 이끌고 온다. 이 과는 유대민족이 유대땅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때 초기의 우선권들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권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사람들은 추방 때의 뼈저리는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그들의 번영의 진정한 근원은 야훼,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이해했다. 하나님을 예배함의 중심은 예루살렘성전이였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상징했다. 성전에서 드러진 예배를 위한 의식들(제사, 정결의식 등등)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었다.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은, 다른 의식들과 함께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멸망되었다. 예루살렘에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패허가 되었다. 이 멸망때에 바빌론에 의해 지명된 유대 총독 가달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몇마일 떨어진 미스바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 어떤 미약한 증거는 단지 몇몇의 이스라엘백성만이 이 패허가 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도했다고 말한다(예레미야 41:5). 그러나 성전이 없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가운데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처소에서 그의 이름을 세우라” 라 하는 명령을 수행할수 없었다(신명기 12:5).

예배는 믿음의 공동체의 복지와 활력에 핵심이다. 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전통대로 예루살렘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갈망했다. 시편 137편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은 추방자들의 깊은 슬픔을 보여준다. 오늘의 우리의 공부는 예배의 초석을 놓기위해 귀환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일들이다. 첫번째로 희생제물을 드릴 단이고 두번째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것이다.

제단과 제사의 회복(3:1-6)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온 추방자들은 예배를 위한 기회를 회복하기위해 일을 지체없이 시작했다. 비록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 그 해는 주전 537년경에 세스바살에 의한 초기귀환 후 얼마되지 않는 때이었다. 배경으로서 우리는 에스라 2장과 그와 비슷하게 느헤미아 7장에 나오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아야한다. 그 명단은 돌아온사람들과 추방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조상들과의 사이에 혈통의 관계를 강조한다(창세기 12:1-3).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성취하실 사람들을 나타낸다.

3:1. 그들 각자의 도시에 정착한 후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한사람처럼 모였다. 이 “예루살렘에서 한사람” 이라는 표현은 앞으로에 해야할 일들을 위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문구였다. 저자는 이 모임이 일곱번째 달, 즉 히브리달력에 가장 중요한 달에 일어났다고 기록한다

(레위기 23:23-44). 나팔절기에 더해 일곱째 달은 속죄일과, 초막절을 포함한다. 이 날은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회개의 엄숙한 날이었다- 가장 성스러운것-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었다. 초막절, 모든 남자가 참여해야하는 세가지 순례자의 축제중의 하나인 날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동행했던 광야 유랑생활에서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했다 (레위기 23:40-42).

3:2-3.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땅으로 돌아온 처음 수십년간에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들이 누구인가 혹은 그들의 지위에 대한 과시적인 묘사없이 갑자기 등장한다. 아마도 이것은 예배의 회복은 모든 공동체를 포함한 것이지만 단지 몇몇의 지도자의 어깨에 달린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성경본문은 성전을 재건하는데에 도구가 된 이 두사람에 대한 부가설명을 한다.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여고니아라 알려진) 의 손자이며 여호야긴은 주전 597 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마지막 왕들중의 하나이다 (열왕기하 24:10-13; 역대하 36:9-10). 그는 또한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도 칭해졌다. 스알디엘은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다 (에스라서 3:2). 그러나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스알디엘의 형제인 베다이가 그의 아버지라고 전한다 (역대상 3:17-19). 이 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스룹바벨의 생부의 죽음을 의미한다. 스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으로 섬겼고 주전 520 년경에 페르시아왕 다리우스 1 세에 의해 지명을 받는다. 그는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두들어지게 언급된다. 두 책은 그를 이상적인 다윗과 같은 통치자요,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한 사람으로 본다 (학개 2:20-23; 스가랴 4:6-10). 그의전에 세스바잘처럼, 스룹바벨의 후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예수아 (혹은 다른 곳에서는 여호수아라 표기되는) 는 여스닥 (여호사닥이라 표기되는) 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공식 대제사장이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중에 하나였다 (역대상 6:14-15). 여호수아는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학개 1:1; 스가랴 3:1). 스룹바벨은 이 두사람이 같이 나올때에 항상 먼저 나온다. 여기에서 저자는 예수아를 먼저 쓰는데 그 이유는 그는 예배에 대한 것에서는 대제사장으로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었다.

성전의 재건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다시세우는데 첫번째 단계였다. 이 구절에서 몇몇의 내용은 새로운 재단을 이스라엘의 조상의 전통과 연결한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주의 천사” (역대상 21:1-22:1)의 지시에 따라 첫번째로 이스라엘의 번제 재단을 세운다 (역대하 4:1). 솔로몬의 위대한

청동재단은 그 같은 곳에 성전앞에 서있었다 (역대하 4:1). 추방자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새운 재단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새로운 재단을 세웠다. 더군다나 그 새 재단과 재물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법대로 세워졌다 (에스라 3:2). 첫번째 드러진 희생은 번제이었고 그것은 그날 아침과 저녁에 행해졌다 (출애굽기 29:38-46). 번제는 재단에서 완전히 소멸되었고 사람들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완성을 상징했다 (레위기 1:1-17).

이러한 노력에 대한 반대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 부터왔다 (에스라 3:3) 이 문구는 다른 정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본문은 정확히 반대의 근원이 어디인가 밝히지 않는다. 그 문구는 귀환한 추방자가 아닌, 주변을 둘러싼 곳과 유다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조상이 망명생활을 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앗시리아에 의해 주전 722/721 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북왕조의 시민들로 부터 온 자손들) 그리고 이웃지역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우리는 느헤미아에 관한 나중에 나오는 여러 과를 통해 귀환한 포로들의 노력에 반대한 첫번째 암시는 회복되는 유대공동체에 반대하는 폭력적인 위협으로 변한다는 (느헤미아 4:1-23; 에스라 34:4-23 참조) 것을 보게 될것이다. 이러한 반대는 귀환한 사람들사이에 공포감을 불러일으켰고 성전의 기초공사의 계획을 지연시켰다 (3:6).

3:4-6. 아침과 저녁으로의 제사에 더해서, 새로운 공동체는 초막절을 축하했다. 그리고 축제와 의식들을 지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달에 대한 제사, 민수기 28:11-15). 축제는 공동체의 축하와 감사가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때에 사막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레위기 23:39-44; 신명기 16:13-15; 민수기 29:12-32). 포로들은 그들이 유대땅으로 돌아올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제 2의 출애굽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형태로 큰 감사를 표현한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성전없이는 완전할 수 없었다.

성전을 재건하는 준비 (3:7-9)

이 반대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자들과 재료를 살 재정적인 부분들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기부금들은 주로 은으로 되었는데 이 당시에 유다에서는 동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주로 왕들은 국가적인 성전을 위해서는 그들의 의무의 하나로 알고 국고에서 총당했다. 다윗과 솔로몬은 첫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물자들을 많이 제공했다 (역대상 9:1-5; 역대하 2:1-17). 이러한 경우에 모든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데 동참했다.

다시한번,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에 중요한 지도자로 나타난다 (에스라 3:8-9). 다른 구절은 이 공사를 추방자들의 귀환을 이끌고 성전에서의 그릇들을 운반한 세스바살에게 공로를 돌린다 (5:16). 아마도 세스바살은 일을 시작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선가 진전을 많이 거두지는 못했다 (그가 혹시 페르시아에 의해 소환됐는가?) 모인 관원들은 레위인에게 일의전체를 맡겼다.

주석가들은 성전을 세우는데 준비와 솔로몬 성전을 세울때의 준비 사이에 비슷한 점에 주목한다. 새로운 성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솔로몬 때와 같이 (열왕기상 6:1) 두번째 달 (3:8)에 시작된다. 두 성전은 레바논에서 수입된 백향목을 사용했고 두로와 시돈에서 온 기술자들을 고용했다 (역대하 22:4; 에스라 3:7). 이러한 연결은 귀환한 포로와 예루살렘의 멸망전에 선조들 사이에 계속성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속에 일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셨다.

기초를 놓기 (3:10-13)

3:10-11.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은 귀환한 유다인에게는 즐겁고 의미있는 일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러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찬미와 감사의 예배를 주관했다. 제사장들은 하얀 면으로 된 조끼를 입고 트럼펫을 손에 들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심벌스를 가지고 섰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윗왕의 지침에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귀환한 유다사람들 사이에 계속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다.

찬미의 노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대한다 (인자하신 사랑 NRSV: 이말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이 두 연결된 주제는 시편에 자주 나타난다 (시편 100:4-5; 106:1; 118:1; 136:1).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는 신실함, 특히 모세와의 맺은 언약을 통한 신실함을 표현한다. 이러한 노래는 사람들에게 의해 경험된 깊은 기쁨을 표현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놓여졌기 때문이었다 (에스라 3:12).

3:12-13. 그러나 기초를 놓은 것은 사람들 사이에 여러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울음소리가 찬양을 하는 중에 들려졌다. 전에 있었던 성전을 직접 본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파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분명히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고, 아직도 그것을 손실한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으며 과연 새로운 시작이 그 전에 있었던 건축물의 영광과 비길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슬픔만이 그날을 지배하지는 않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격했고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다. 비록 성전은 주전 515년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풍속의 완전한 회복을 고대했다. 기초를 놓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예배에 대한 기쁨이 유대인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생각해볼 질문을 적는다. 얼마나 오래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녔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제공했는가?
2. 이번 단락을 위한 주제와 교육목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3. 반원들에게 의미있었던 예배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한다. 질문을 한다. 어떠한 것이 그 순간들을 특별하게 했는가?

학습인도

4. 지난주에 배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고 또한 느브갓네살왕이 성전에서 가져간 물품들을 되돌려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5. 당신이 에스라서 3:1-7 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 얼마나 자주 사람들은 재단을 수리하고 예배를 재건하기 위해 모였는가?
- 당신은 이스라엘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높았는가 낮았는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외부의 반대는 예배를 향한 열망에 영향을 주었는가?

6. 교안을 저술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 몇년전에 그는 예루살렘의 어느 침례교회에서 수요일 밤 기도회를 참석했다. 약 15 명 정도의 남자가 기도와 예배를 위해 모였다. 예배후에 목사님과 만나면서, 그는 이 남자들이 이슬람종교에서 개종한 것을 알았다. 각각의 경우,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을 외면했고 그들중 몇몇은 그들의 직장을 잃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인 새로운 믿음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이사람들과 또한 이들과 같은 처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댓가는 매우 크다.

반원들에게 혹시 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때문에 댓가를 치른 삶을 사는 사람을 안다면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7. 질문을 한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룹원들에게 대답하도록 시간을 준다. 학습지도안에 “회복된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의 시작” 이라는 제목 아래 있는 첫번째 문단에 있는, 예배란 “감사를 드리는것,” “찬양,” “감사” 를 포함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반원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들 자신의 예배속에 포함되는지 생각하게 한다.

8. 에스라 3:10-13 읽는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 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울었다. 토론후에 학개 2:14 을 읽고 학개선지자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예전성전의 장엄함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서서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한다.

적용격려

9. 에스라서의 목적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외와 예배를 경험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용한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질문한다. 우리교회의 역사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 새로운 경외와 처함을 갖게 했는가?

단원 1. 에스라: 다시 시작하기

10. 이 단락을 시작할때에 당신이 칠판에 쓴 생각해볼 질문을 언급한다. 다음과 같이 묻는다.
당신은 예배를 위해 당신의 안락한 집과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위험하고 폐허가 된 도시에
돌아가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는 당신을 부르시지 않았지만, 혹시 그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에 더 한결같고 더 부지런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같이 되기를 격려하는 것을 지적한다.

11. 학습지도안에 있는 짧은 글 “예배를 풍성히 하는 방법”을 언급한다. 각각의 제안들에 대해
생각을 나누도록 한다. 반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나누게 한다.

반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한다.

<p>[제 3 과]</p>	<p>하나님의 일에 우선권 두기</p>
<p>핵심본문 학개 1:1-11; 2:1-9</p> <p>배경 학개 1-2</p>	<p>학습주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 존귀히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데에 기여하는 것을 요구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어느정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른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게으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p> <p>학습목표 성경공부그룹이 얼마만큼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가와 하나님의 일에 큰 우선권을 두는가를 평가하도록 이끈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학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할 가장 예언자적이고 지명받은 사람중의 하나였다. 이 사람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독특하고 강한 하나님의 진리의 목격자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의 청중들은 바빌론 사람들에 위한 추방으로 부터 유대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주전 587 년에서 538 년까지의 시기). 바빌론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어려웠고 그 주된이유는 그들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전에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를 가졌던 예루살렘에서의 영감을 주는 성전 예배로부터 격리되 있었다. 주전 950 년에 솔로몬왕이 성전을 완성한 때부터 이 성스러운 건물은 이스라엘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쪽의 지성소에 사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왔을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왔다고 믿었다.

단원 2.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주전 587 년경에 느브갓네살왕은 바빌론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불타 없앴다 (열왕기하 25:8-21 을 참조). 유다에서의 생존자들은 국가적 패배와 개인적인 손실을 슬퍼하며 고향과는 먼 이방땅으로 끌려갔다.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지도자중 한명이 에스겔선지자이었는데 , 이선지자는 전에는 제사장였지만 하나님께서 추방자들가운데 예언자로 부르셨다. 사실 하나님의 에스겔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보좌병거에 앉아계시는 환상이 중심이 된다 (에스겔 1 장을 참조).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곳 어디나 계실수 있는 분이셨다.

포로기간중에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정의가 되어졌다- 회당). 그래서 이스라엘민족의 깊은 위기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때에는 먼 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워야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

결국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국이 바빌론왕국을 정복하였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민족들은 주후 538 년경 고레스왕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갈수 있게 되었다 (에스라 1:1-4; 제 1 과). 유대사람들에게는 이 칙령은 놀랍고 오래 기다려 왔던 소식이었다. 그들을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삶을 재건할수 있었다.

물론, 포로기간에 변화된 것도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갔다. 그들의 전통적인 성전에서의 예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은 부정적인 영적 측면을 가져왔다- 그것은 냉담함 이었다. 성전이 없었던 포로시기의 조건에 적응하여 돌아온 사람들은 회파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것을 더디게 천천히 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즉 주후 538-536 년에 사람들은 기초가되는 돌을 다시 놓는 노력과 성전재건을 시작했다 (에스라 3 장을 참조: 2 과). 그러나 공사는 멈추어섰고 그 구조는 황폐된대로 남아있었다 (이스라 4:24). 시기는 어려웠다. 사람들은 그들의 집과 농장에 제한된 자원들을 사용했으며 성전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전 520 년에 몇달동안을 걸쳐서 (학개 1:1 을 참조: “여섯째 달” 2:1, “일곱째 달;” 그리고 2:10 “아홉째 달”), 하나님은 학개선지자를 일깨우셔서 재건축운동을 자극하는 몇번의 명확한 설교를 하게 하셨다.

설교를 위한 보내심(1:1-2)

1:1. 학개가 첫번째로 설교한 날짜는 “다리우스왕의 집권 2년째, 여섯째달의 첫날”이었다. 다리우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다. 포로들의 초기귀환후 18년이 흘렀을때, 즉 약 20년이 지났을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한 자극을 필요로 했다. 그들의 처음의 노력들은 수년동안 난항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고 동기부여를 할 새로운 목소리- 예언자-를 보내셨다.

1:2 하나님은 사람들의 태도를 예로 드시며 학개선지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심지어 실지로 전할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학개선지자야,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재건을 다시 수행함에 대한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온갖 변명과 합리화에 화가 나셨다.

이기심의 실패와 허망함 (1:3-6)

1:3-4. 학개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의 시간이 너희들의 집을 완성하고, 나의 집은 황폐하게 그냥놓아두는 데에 적절한 시간이나?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집은 아주 잘 재건되었고 패널판으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기초를 놓는 직사각형의 돌이상은 없었고 잡초와 야생 풀들로 덮혀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8년 동안을 지체했다. 그들은 아직 적당한 때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자신들의 집을 위해 사용할 시간과 돈이 있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못하는가? 사실 그들이 성전을 완성하는것을 실패한 첫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지 않아서였다. 이기적인 개인의 안락함이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영적 헌신보다 더 중요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아니었다.

1:5-6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의 모순됨에 대해 역설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너희는 별로 진전이 없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지만, 너희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 된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처를 재건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그들자신의 번영에 대한 실패를 동반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유대 땅으로의 귀환 후의 날 동안에 그들은 계속되는 장애물을 경험했다. 아마도 그들을 둘러싼 여러 반대들, 예를 들어 극심한 가뭄과 흉년은, 사람들이 그도록 귀환 후에 성취하려 했던 기쁨과 부요함을 앗아갔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댓가를 받지만 그 돈은 마치 “구멍 뚫린 자루”에서 흘러나가는 돈처럼 되는 것을 보며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를 묻는다.

노력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1:7-11)

학개 선지자는 유대사람들이 멈추어서 다시 자신들을 재평가 하도록 도전한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방식과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심각하고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마치 영적 거울을 들고 보는 것처럼,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질문을 한다. 너희들은 너희가 쏟은 노력에 비해 어떠한 결과를 얻는가? 너희 자신의 노력과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관계에 대해 다시 재고해야 하지 않는가?

학개 선지자는 그들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과 그들의 실패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극적인 관계를 선포한다. 적어도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은 영적인 원칙,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 만사가 잘될 것이나, 만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질 것이라는 원칙에 열심히 일했다. 이 사실은 신명기 28 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사건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원칙이 구약을 통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역사서와 예언서에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역사철학은 인간역사의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다. 역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에 대한 성취로서 이해되어졌다.

학개 선지자는 그의 말씀에 진지했다. 그의 도전적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향한 오래된 진리의 가장 최근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음으로 사람들은 충족되고 만족된 삶을 사는 것이다.

재건축의 재시작 (1:12-15)

학개 선지자의 설교는 확실히 새로운 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자극제로 증명되었다. 학개 선지자가 국가적 설교를 한 후 약 세 주 후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달, 여섯번째 달, 24 일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중요한 일을 다시 착수하게 되었다.

재건축의 노력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 (2:1-9)

2:1. 그들이 노력을 한지 약 한달 후에 사람들은 학개로부터 두번째 계시를 듣는다. 그러나 이때에 “일곱째 달, 그달 21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와 도움의 말씀이었다. 일을 시작한후 한달 후에 사람들의 사기는 실망으로 사글어져 갔다. 그래서 학개는 그들에게 영적후원이 되기를 갈망했다.

2:2-3. 귀환한 포로무리들 중의 몇몇은 주전 587 년에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할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재건되가는 성전은 (후에 제 2의 성전이라 불린) 첫번째 만큼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았다. 솔로몬시절의 부와 번영은 오래된 일이었다. 그곳에 누추한 성전의 외적 모습이 있었다. 지나간 영광스러운 날의 기억은 지금의 고통과 낙심의 근원이 되었다 (에스라 3:11-13 참조).

2:4-5.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심오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상기시키기 위해 학개선지자를 보내신다. 그 진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이다 (학개 2:5). 마치 옛날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곁에 계신다. 그들의 확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함께하심이 건물의 멋있는 건축적인 세밀함에 있는 것이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심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다. 건물은 항상 사람들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건물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2:6-9.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결국 안전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자원들이 그의 것이기에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실수 있었다. 더이상 그 사람들은 미친듯이 씨를 뿌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들을 위해 돈을 벌지 않아도 되었다. (1:6 을 다시참조). 그들의 위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었다. 그 성전건물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은 결코 핵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들 옆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영원한 관계에서의 핵심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이렇게 말한다: 만일 당신이 집주인이고, 당신의 집에 어떤 곳이 수리나 혹은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혹시 누군가가 수리를 미루어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는가? 다행이도 여기 누군가가 아직 집안에 끝내지 않은 일이 있는가?

2.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 당신의 집이나, 직장, 단체나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일을 끝내지 않았을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이해하는가? 그것이 당신이 소홀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었는가?

3. 만일 이러한 질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라면, 반원들은 학개 선지자에 의해 전해진 예언적인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학습인도

4. 다음의 성경구절들을 카드에 적는다: 학개 1:1-4; 학개 1:5-11; 학개 2:1-5; 학개 2:6-9.

(자료는 이공부를 위한 교사자료 www.baptistwaypress.org 에 있다). 그 구절들을 크게 읽도록 네 사람에게 카드를 나누어준다. 학개에 관한 짧은 배경지식을 이야기한다. 히브리정경에는 학개는

단원 2.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예언자들중의 뒷자리에 앉아있고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아 혹은 요나의 천동번개와도 같은 선포에 비교하면 빛을 바랜다. 다른 예언자들은 길고 웅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겪었으며 성경에 많은 장에 많은 말들을 한다. 그러나 순전히 중요한 시기인 주전 520년에 유대에게 향한 학개의 말씀보다 더 긴박한 것은 없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과시나 계보없이 네번의 날카로운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가 해야했던 말씀을 읽자.

5.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학개 1:14을 읽게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질문을 한다.

- a. 성경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성경공부반에서 역사에 관한 부분에 채워넣기를 하도록 준비한다. 학습지도안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교안에 주석도 사용한다. 또한 바빌로니아에 대한것, 고레스왕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가를 상기시킨다).
- b.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 특히 1:4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소인가?

설명: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것, 즉 유일하신 진리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위한 중심되는 것을 낮은 우선순위에 놓았다. 더군다나 고생하는 추방자들의 귀환후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에 우선권을 두고 그렇게 하면 일어날 혜택을 받는것에 필요가 절실했다.

6. 칠판에 다음 세 구역을 가진 도표를 그린다. “증세” 라는 말을 왼쪽에 “진단” 을 중앙에, “처방” 을 오른쪽에 쓴다: 확실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병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접근하는 방식이다. 반원 한명을 1:5-11을 읽게 한다. 그리고 반전체에게 도표를 채우기 위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뜻들을 토의하게 한다. 도표에 응답들을 적는다 (예: 증세- 흉년, 기근, 목마름, 부족함, 번영없는 삶. 진단- 성전건축의 실패; 자기 중심성. 처방- 성전건축. 더욱 나쁜것은 하나님께서 가뭄과 기근을 선포하셨다.)

7. 한 자원자에게 2:1-5을 읽게 한다. 모두가 읽기 전에 반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귀 기울이라 말한다. 읽은 후에 말한다: 우리는 학개 선지자의 첫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으로 부터의 엄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두번째 설교이 주제는 무엇인가?

-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가?

단원 2. 학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

-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고 새로운 건축을 전의 영광에 비교하는 사실이 당신을 놀라게 하는가?
- 유대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성전건축을 완성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겠는가?
- 격려가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가?

8.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개선지자는 포로들이 다시 힘과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과 그들의 임무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를 전한것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올 놀라운 미래를 밝히기 위해 커튼을 걷는 것과 같았다. 자원자로 2:6-9을 읽게 한다. 반전체에게 미래에 대한 요소들을 말하게 한다. 평화를 말하도록 한다 (2:9 NIV). 학습지도안에 “놀라운 영향력들”이라는 제목아래에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설명을 언급한다.

적용격려

9.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이 “살아온 날을 곰곰히 생각해보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학개선지자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이기적인 위로에 대한 갈망과 비교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순종에로의 헌신을 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몇 천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반원들에게 기도를 위해 머리를 숙이도록 한다. 하나님의 일에 큰 우선권을 두는 결정을 하도록 생각할 기회를 준다

10.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라는 노래나 다른 복음송가를 하고 공부를 마무리한다.

<p>[제 4 과]</p>	<p>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p>
<p>핵심본문: 스가랴 1:1-17</p> <p>배경: 스가랴 1 장</p>	<p>학습주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용서와 회복을 주신다.</p> <p>탐구질문: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p> <p>학습목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와 회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반을 인도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다. 선지자 학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BC 520 년에 학개는 몇 달에 걸쳐서 그의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제 3 과를 참조.) 스가랴서에 의하면 선지자 스가랴의 사역은 학개의 사역보다 더 길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많게는 2년 (BC 520-518) 정도 더 오래 사역했다고 전한다.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스가랴서의 핵심주제는 학개와 같은 주제인데, 성전재건축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회복이다.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래서 2명이 선지자들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스가랴의 메시지는 학개의 메시지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전해졌다. 학개의 말씀은 직설적인 메시지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먼저 며칠 밤 동안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그에게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시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통해 그 새로운 진리를 듣게 하셨다.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계시를 받은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 새롭게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만, 점점 그 역할이 바뀌면서 나중에는 스가랴와 같이 영적인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예언적 설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된 “계시록적 말씀”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스가랴의 환상도 바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된 계시록적인 말씀의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시록적인 말씀과 환상에 익숙하다.)

하지만 “예언적 말씀”이나 “계시록적 말씀”처럼 서로 설교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핵심내용이 바꾸는 것은 아니다. 스가랴와 학개의 설교 스타일이 달랐으나 스가랴는 학개가 전하는 메시지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학개는 그의 메시지에서 “성전을 재건축하라! 지금이 성전을 재건축할 시기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어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외쳤다.

우리는 이번 학습에서 스가랴 1:1-17 절을 통해 학개의 메시지를 공부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무너진 그 땅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실 준비가 되셨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들의 죄악과 벌, 그리고 멸망이라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뒤로한 채,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 회복하고 그 땅을 재건축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과 이 땅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준비할 때, 이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용서의 목적은 바로 그의 백성이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날을 창조하는 것이다.

과거의 죄로 인한 실패와 징벌을 통해 배우다. (1:1-6)

1:1 첫 구절은 스가랴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잇도(느헤미야 12:12-16)라는 선지자의 후손으로써 스가랴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당한 선지자 집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BC 520 년에 스가랴는 이미 예언적 환상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유대 땅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대에 학개도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

1:2-4 스가랴는 그의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유다가 과거에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BC 587 년에 그들은 불순종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망하고, 그들의 집과 모두 무너졌으며, 정치적 포로생활을 타국에서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의 결과는 바로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고 스가랴는 약속한다. 그는 BC 520 년에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이제부터 유대민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를 선지자로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새롭고, 희망적이며, 신실하고, 튼튼한 관계를 맺도록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3 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1:5-6 스가랴는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이 그들의 조상들의 뼈아픈 과거를 통해 진정한 교훈을 똑똑히 배우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그 때의 조상들과 똑바로 살 것을 경고했던 선지자들 모두 죽고 없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 했던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의 불순종의 세대가 아닌 그들의 새로운 후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똑 같은 상황 속에서 똑 같은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선택을 순간에 있다.

과연 이들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계속해서 믿음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스가랴는 선택 앞에 서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는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신실하게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한다.

세계를 정찰하는 4 명의 말 탄 정찰병들에 대한 환상 (1:7-11)

1:7. BC 520 년 11 월말 어느 늦은 밤,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다. 이 특별한 메시지는 유대 땅을 아주 잘 통치하던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오른 초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받게 된다.

그 당시 유대민족들은 다리오 왕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나라의 이곳 저곳을 돌며 정찰하는 모습을 자주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을 탄 정찰병들은 나라의 모든 곳을 돌아 다니면서 사람들을 통솔하고 다스렸을 것이다. 이런 정찰병의 목적은 바로 나라전체를 돌아다니며 왕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이다. 스가랴가 곧 환상에 나타난 4 명의 말을 탄 정찰병들도 바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는 군사로 묘사된다. 그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4 명의 말을 탄 정찰병들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8-11 한 밤중에 본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스가랴의 환상에 나타난 4 명의 각각 다른 말을 탄 정찰병들(1:8)은 천사에 의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서는 이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정찰한다. 이와 같은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곧 유다에게 어떤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스가랴 6:1-8 절에 기록된 또 다른 4 마리의 말들에 대한 환상을 참고하라.)

4 명의 정찰병들은 정찰 후, 돌아와서 온 땅이 평온하고 정상적이며 별 일이 없다고 보고한다 (1:11). 하지만 하나님과 스가랴 사이에서 메신저로 활동하는 천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들의 생활모습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천사는 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포로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발견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억압과 탄압을 받고, 기근과 가뭄에 허덕이며 낙심한 상태임을 보았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와 은혜 (1:12-17)

1:12-13 천사의 질문은 아주 분명하고 정직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도 매우 직접적이고 실질적이었다. 천사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의 상태를 회복시키실지 궁금하였다. 그래서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시도록 간구하였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라는 문장은 구약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하나님에게 묻던 질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앞으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사야 6:11). 그리고 시편기자가 자신의 슬픈 현실을 노래하면서 시편을 기록했을 때, 그는 언제까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깊은 슬픔을 표현했다. (시편 4:2; 13:1-2)

스가랴 1:12 절에서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른 사실에 주목하라. 히브리어로 “만군”은 Sabaoth 라고 한다. 이 단어의 뜻은 온 하늘의 수많은 별들 (신명기 4:19)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 (여호수아 5:14-15)라는 뜻도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사들(시편 148:1-2)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든지 “만군”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온 역사와 창조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천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의 핵심은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능력으로 언제 그들을 구원하시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70년의 포로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원수의 땅에서 이끌어 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7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완전한 무너짐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혹은 BC 586/87년에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 70년 후인 BC 516/17년도에 재건축된 사건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 하여튼 “70”이라는 숫자는 유다의 과거의 죄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의미이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라는 부르짖음은 바벨론 포로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그들의 울부짖음이었고, 이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고향, 유다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다. 그 응답은 아주 좋은 소식이었다. 하나님은 천사의 질문에 “좋은 말”로 대답하셨다 (스가랴 1:13).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향한 스가랴와 천사의 걱정과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간절함을 잘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다시 약속하셨다.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1:14-17 스가랴는 유다 민족들에게 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 (1:14). 하나님은 그들과 아주 오래 동안 언약을 맺은 관계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대가로 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 다른 민족들이 이제는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다. 그래서 앗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다 (BC 722). 그리고 BC 587 년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벌하셨다. 하지만 앗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무리하게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다 (1:15). 이와 같이 천사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제 앗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 예루살렘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고, 새롭게 재건축될 것이며, 시온 산에 새로운 성전이 건설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라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말했다 (스가랴 1:16)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래,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도 이 도시를 떠나야 했었다. 왜냐하면 내가 머무를 성전들조차 모두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과거에 묻어두자. 이제 너희들은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함을 뜻하는 나의 집, 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나와 함께 할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17 절에 “다시”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시고, 위로하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기를 원하신다.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나쁜 행동들에 대한 변명” 이라고 쓴다. 저번 과에서 했던 똑 같은 실습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나쁜 행동들에 대하여 어떤 변명들을 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칠판에 나열해 본다. (예: 나는 화가 났을 때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화가 나면 참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속도위반을 하는데 괜찮겠지.) 변명들을 모두 칠판에 쓴 후, 다음의 질문을 한다.

질문: 이런 변명들이 정말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변명을 말한다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이에 대하여 토론을 해보자.

2. 칠판에 다음의 문장을 쓴다.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입성, 변명 없는 지역.”

설명: 포로생활에서 귀환해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옛날 선조들의 잘못을 잊지 말고, 그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말 것을 당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선조들이 지었던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에 같은 죄들이 이들에게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에서 이들을 막기 위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지켜야 할 모든 규례와 명령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가르쳐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울 한 사람을 보내셨다.

학습인도

3. 이번 과의 스가랴와 저번 과의 학개는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임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다. 다음의 비교차트를 칠판에 그린다.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학개	스가랴
어두운 과거	제사장 잇도 집안 출신
실질적인 행동파	현실적인 환상주의
한가지 주제: 성전의 재건축	새로운 예배와 영적인 회복을 촉구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	보통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

4. 설명: 언약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진 오랫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그들의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손에 맡기셨고, 그들의 포로생활은 BC 58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스라엘 성벽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무너졌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들은 모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이제 국가도 없으며 우릴 보호하시던 하나님도 잃었다.”

5. 다음의 질문들을 한다.

- 포로생활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정신적, 영적인 충격을 가져왔겠는가?
- 조상들의 행동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 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과연 어떤 변명들을 늘어 냈겠는가?

6. 한 명을 지목해서 1:2-6 절을 읽도록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구절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주의 깊게 듣도록 한다. 한 명을 지목해서 구절을 요약하게 한다.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요약한 내용을 칠판에 써본다.

7. 질문: 스가랴는 왜 과거의 역사를 먼저 설명했는가? (혹시 그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스가랴는 유다가 왜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거 역사를 먼저 설명한다.) 포로생활에서 귀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가? (너희 조상들과 같은 죄를 짓지말라.)

설명: 하나님은 이들 중에 과거 선조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짐시키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8. 1:7-17 절에서 배경이 바뀐다. 몇 명을 지목해서 1:7-8; 1:9-13; 그리고 1:14-17 절을 읽도록 한다. 그들이 차례로 읽고 난 후에 다음을 설명한다.

설명: 스가랴는 자신이 본 몇 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소개한다. 하나님은 4 명의 말을 탄 정찰병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그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 다닌 후에 그 내용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환상이다. 그 다음 환상에서 그 정찰병들이 조그마한 화석류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 그 때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정찰병들이 무엇을 보고할 것인지 자세히 보라고 설명한다. 그 정찰병들은 하나님께 모든 세계가 다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보고 드린다.

질문:

- a. 12 절에서 그 정찰병들의 보고에 대한 천사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b. 천사의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
- c.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평안과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적용격려

9.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이다. 선지자의 이름이 과거와 현재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하나님은 과거의 불순종과 죄악을 반드시 기억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관계와 그의 약속도 기억하신다.)

10. 한 명을 지목해서 6 절을 읽도록 한다.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하도록 하시는가? 몇 명의 대답을 들어본 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설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가지고 있다.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는가? 몇 명의 대답을 들은 후에 회개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 한다.

<p>[제 5 과]</p>	<p>10 가지 격려의 말</p>
<p>핵심본문: 스가랴 8 장</p> <p>배경: 스가랴 8 장</p>	<p>학습주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다른 민족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가?</p> <p>교육목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고, 현재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공부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유대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BC 587년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유대민족의 죄악들과 바벨론에서의 긴 포로생활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특별히 그가 선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전 인류를 향한 그의 계획과 사랑은 한 순간도 포기된 적이 없었다.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9:3-6; 마태복음 28:18-20 을 참조)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우리는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인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을 맺은 자로써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특별히 그는 구약전체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주께서 말씀하시길……” 과 같은 전통적인 표현으로 신자의 신실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한다. 스가랴서의 첫 번째 부분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10 번이나 사용했다. 기억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만군의 주” 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유대민족에게 전한 10 가지 말들 모두 하나님께 받은 말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스가랴서 첫 부분에 나오는 이 10 가지 말씀들은 스가랴가 전한 설교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며, 스가랴서에 나오는 다른 설교들도 결국 이 10 가지 핵심 주제들을 근거로 한 설교들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 장 본문에 나온 말씀은 유대민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권면의 내용이다.

스가랴의 10 가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과 무너진 도시를 세우는 것, 그리고 농작물과 상점, 집들을 재건축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 그들은 오랜 포로생활 끝에 그들이 고향, 유대 땅으로 드디어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황량한 도시와 무너진 성벽, 그리고 염두도 내지 못할 만큼 쌓인 일거리들뿐이었다. 더욱이 그들의 노동을 뒷받침해줄 재정적, 정치적 도움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들이 의지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도움밖에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가 전한 “10 가지 격려의 말씀” 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자원이다. 유대민족은 절대로 그들의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라는 영적인 유산을 잊지 말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백성답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책임지신다 (8:1-2)

스가랴는 1:14-15 에서 유대민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반복해서 전한다. (제 4 과 참조) 특별히 8 장에서 스가랴는 보다 자세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괴롭히는 다른 이방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설명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서는 유대민족과 다시 한번 새롭게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새롭게 재건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8:3)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 성전의 한 가운데에 자리한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옆에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를 배반한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에스겔 10 장),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오시며 그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길 원하신다고 하신다 (스가랴 2:5, 10).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새로운 헌신으로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역사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장소가 되었다. 성전은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시온산에 자리하게 된다. 이 산에는 많은 봉우리와 등성이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산은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 또한 시온 산이 특별한 이유는 예전에 그 자리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 자리에 다시 성전이 지으시면서 예루살렘은 과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기에 이 장소가 더욱 특별한 것이다.

안전과 보호의 장소, 예루살렘 (8:4-5)

스가랴는 남녀 노인들이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스가랴가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자. 아이들과 노인들이 모두 안전하게 자신의 모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이다. 보통 안전을 위협하는 큰 일들 (전쟁, 태풍, 전염병, 지진, etc...)이 일어나면 보호가 가장 많이 필요한 대상이 바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다.

하지만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노약자들이 길가에 평화롭게 앉아서 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지팡이를 짚고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자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나눌 때 옆에서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래를 꿈꾸고, 앞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 되도록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뿌린 씨는 잘 자라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8:12a).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 7:2)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서 “shalom” (예루-shalom)이라는 단어 “Shalom”이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Shalom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평화”라는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니라, 더욱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단어에는 “완전,” “전체,” “성숙,” 혹은 “성취”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평화를 뜻한다.

그래서 다윗왕이 이 도시를 수도를 정할 때 그는 이 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가장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지성소와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Shalom”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길 원하셨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셨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즐겁게 살기 원하셨다. 신약의 저자들(계시록 21:1-22:5)도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함께 나누신다. (8:6)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몇 명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 혹은 일반인들은 결코 이런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식민지와 포로생활로 고통을 겪었던 자들은 물론 이런 날을 갈망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날이 왔으며 그들의 고통이 치유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선물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스가랴는 그런 기쁨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누리신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실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과 유대민족 모두에게 달콤한 기쁨이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모이다 (8:7-8)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 에 침략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BC 587 년에 침략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람처럼 사방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12 지파는 아주 작은 부족으로 축소되었고, 누가 보아도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찌꺼기 백성으로 만드셨다. 하지만 그런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놀랍게도 현실로 이루어졌다 (스가랴 8:6).

아주 옛날, 이집트에서 출애굽 할 때,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12 지파를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제는 그 반대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그들의 선조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

첫 인류를 만드셨을 때부터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실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새 이스라엘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오직 한가지만을 원하신다. “인간과 절대로 깨지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 이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성경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8).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언급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분의 성실과 공의를 경험한 자들이 사는 곳이다.

순종의 결과는 하늘의 상금이다 (8:9-13)

학개는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한다. 스가랴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이 구절에서 전하지만, 학개 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말투로 희망과 확신을 말씀을 전한다. 스가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확신을 준다 (8:10-11).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셔서 그들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예전에 그들이 겪었던 흉년과 다른 이웃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다시는 당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뿌리는 씨에서 열매를 많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유대민족은 지금까지 다른 민족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와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그들의 실추된 명성은 다시 회복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8:13a). 하나님과의

안전한 관계를 통해 그들은 더 이상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될 것이다 (8:13b).

하나님께 용서받은 백성은 신실하다 (8:14-17)

스가랴는 유대민족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이제는 그런 실패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8:14-15 과 1:3-6, 13-17 을 비교). 하나님께서는 실패에서 회복된 그의 백성들에게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도덕적인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회복한 백성은 이제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진실과 믿음과 정직으로 서로 대해야 한다 (8:16-17).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슬픔과 고통의 과거는 이제 기쁨으로 회복된다 (8:18-19)

사람들은 스가랴에게 포로생활 동안 슬픔을 견디기 위해 그들이 했던 고통스러운 금식과 애통의 예배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다 (7:1-13 절의 내용을 참조) 그래서 본문은 그들에 질문에 대한 선지자의 대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슬픔의 예배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기쁨의 축제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다. 이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기쁨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다. (8:20-22)

이제 유대에 대한 명성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 (8:22)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회복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졌던 백성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국가들과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 (8:21).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스가랴의 환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대한 영적인 매력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8:23)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의 감동적이고 생생한 영적 회복 때문에 다른 민족들까지도 그들의 영적 회복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2:10-11).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선택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출애굽기 19:3-6 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2 가지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한다. 너희는 특별히 “선택된 민족” 이다 (출애굽기 19:4-5). 너희는 또한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6)이다. “제사장 나라” 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 (선택: 구원)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포함된다.

스가랴는 많은 무리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민족과 함께 하길 원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는 확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 과연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재건설이나 재건축에 대한 역사들에 대해서 나누어보자. (새마을 운동, 세계 2 차대전 후에 유럽에서 시작된 “유럽재건설운동 - Marshall Plan,” 혹은 Louisiana 의 “New Orleans 카트리나 재건” 등……) 사람들이 답을 하는 동안 당신은 그런 예들을 칠판에 적어본다. 그런 재건축들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보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칠판에 적어본다.

설명: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무너진 도시를 새롭게 재건하려는 그 분의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이스라엘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10 가지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전과 도시를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영성과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학습인도

2. 포스터에 다음의 제목,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10 가지 방법”을 맨 위에 쓴다. 그리고 그 제목 아래에 10 개의 목록과 구절을 쓰면서 성경공부를 인도한다.

3. 다음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의 내용들을 설명한다. 한 명씩 지목해서 각 목록의 해당 구절을 먼저 읽은 후, 목록을 쓰고 설명한다.

말씀 #1: 새로운 감동 (8:1-2).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한 그의 사랑의 질투를 표현하신다.

“질투”라는 단어는 오늘 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질문: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질투하신다는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 할 수 있겠는가? 질투라는 단어 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의지와 사랑을 설명하실 수 있는 다른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 #2: 새로운 이름 (8:3).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다시 임했을 때, 그 도시는 “성실한 도성,”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질문: 왜 옛날에는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가 중요시 했는가?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는가?

말씀 #3: 새로운 안전 (8:4-5). 노인들과 아이들은 이제 시온의 거리를 안전하게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 질문: 이런 도시의 안전과 신뢰는 무엇을 근거로 형성되는가? 그 도시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노인들과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가 보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 #4: 역사의 새로운 장 (8:6).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를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언급하신다. 질문: 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 #5: 새로운 귀향의 물결 (8:7-8).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게 된다. 질문: 하나님께서 오직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예루살렘에 그저 백성의

단원 3. 스가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보다 훨씬 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과 보다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그들을 고향으로 귀향시키셨다.)

말씀 #6: 새로운 성전, 새로운 삶 (8:9-13).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이 되는 성전은 반드시 재건축되어야 했다. 그들은 기초공사를 다시 하고, 옛날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재건축을 시작해야 했다. 질문: 이런 재건축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서는 새로운 도시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게 어떤 존재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가? (8:11-13) 이런 새로운 가치를 누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8:13)

말씀 #7: 새로운 목적, 새로운 헌신 (8:14-17). 하나님께서는 안전과 평화를 예루살렘에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의 전부인가? 질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서 요구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오늘 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어떤 것인가?

말씀 #8: 새로운 축제, 새로운 평화 (8:18-19). 유대인들은 금식에 아주 익숙한데 그 이유는 그들의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한다. 질문: 새로운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위한 그들의 책임은 무엇이었나? (성실과 사랑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충실하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말씀 #9: 새로운 매력 (8:20-22).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온 인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회복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었다. 질문: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공과의 “예언의 성취” 라는 글을 읽고 정리해서 대답해보자.

말씀 #10: 새로운 명성 (8:23).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새로운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방사람 10 명” 은 온 세계의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질문: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당신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 교회에 대하여 많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겠는가?

적용격려

4. 말씀 #9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건물의 회복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신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그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은 무엇이라고 이 구절은 설명하는가? 8장에서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해야 하는 구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10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어느 것인가?

5.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종이와 연필을 나누어 준다. 한 면에는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힘든 문제점들을 적도록 한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스가랴 8:13 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라는 구절을 적도록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친다.

<p>[제 6 과]</p>	<p>일을 처리하기</p>
<p>핵심본문 느헤미야 1 장</p> <p>배경 느헤미야 1 장</p>	<p>학습주제 영적인 조명을 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p> <p>탐구질문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들과 같은 상황이 당신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p> <p>학습목표 유다 나라의 고난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설명하고 오늘날 내가 기도로서 반응해야 할 상황들이 무엇인지 파악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번 과는 느헤미야에 관련된 여섯 과를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 두 지도자에게 있다. 바로 커다란 위기의 시기에 유다에 도착했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이다. 포로 망명 생활에서 귀환한 최초의 유대인들의 심장을 불태웠던 그 영적인 열정이 식어진 상태였다. 사람들은 영적인 길을 잃고 흩어졌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문제는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국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변 군소국들의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유대 백성의 영적, 국가적 복지를 회복시키셨다. 느헤미야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백성들을 규합시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다. 느헤미야의 지원을 받은 에스라는 유다의 영적 각성을 이끌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지도했다.

몇 개의 역사적 배경은 느헤미야가 접한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느헤미야 책은 대략 기원전 445년부터 430년까지의 유다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진술하는데, 이는 페르시아 왕, 아르닥사스 1세(465-425 BC)가 통치하는 기간이었다. 이야기는 기원전 538년/537년 바빌론 포로생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최초로 귀환한 뒤 거의 수 백년이 흐른 뒤의 시점에서 시작된다. 느헤미야가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이미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자손들이 수 세대 동안 유다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 기원전 515년에 봉헌되어졌었다.

하지만, 아마도 기원전 480년의 유다를 비추어주는 말라기의 기록은 소망을 잃고 불순종한 상태에 있던 유다에 부흥이 필요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이러한 위기를 다루게 하셨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풀이할 수 있는 전문가였다 (스 7:6).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공식적으로 보내서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파악했고 사사들을 명하여서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다 (스 7:11-26). 에스라는 일단의 무리를 유다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율법을 옮겨 적고 아닥사스다 왕이 함께 보내준 헌물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게 복종하도록 했다 (느 8-10).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도착한 정확한 시기, 그리고 느헤미야와의 관계는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되어왔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기간인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인정한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앞서 도착했을까? 아니면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도착한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까? 에스라 7:8은 에스라가 후에 아닥사스다 왕으로 밝힌 (스 7:11) 페르시아 왕 7년에 도착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아닥사스다는 아닥사스다 1세 (465-425 B.C.)였는가, 아니면 아닥사스다 2세(404-359/8 B.C.)였는가? 아닥사스다 1세의 7년째 되는 해는 기원전 458년이고 아닥사스다 2세의 7년째 되는 해는 기원전 398년이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가 느헤미야 뒤에 도착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책에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만일 이 두 사람의 일이 중첩 되는대도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가? 혹은 만일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먼저 왔다면, 왜 에스라는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라고 촉구할 때까지 13년을(458-445 B.C.) 기다렸을까? 비록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에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집트에서 발견된 최근의 증거자료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기간인 기원전 458년에 도착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지지해준다.

아닥사스다 1세는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낸다. 유다는 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속해 있었다.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유다 지역은 작았고, 고대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포함되어 있었다. 유다는 다른 페르시아 각각의 총독들이 있는 속국들 -그들 가운데는 사마리아, 암몬, 아세돔이 있었다- 과 접하고 있었다.

이 총독들 사이에는 커다란 정치적 라이벌 관계가 존재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라이벌들이 수 차례 느헤미야를 무력으로 방해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의 주된 과업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개혁을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영적인 기초를 세움으로써 시작했다.

본문해설

고통스러운 소식 (1:1-3)

1:1.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의미이다. 아버지는 이름이 하가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우리는 1:11-2:1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1세의 술 관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닥사스다 1세는 기원전 465년에서 425년까지 통치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은 왕의 곁에 서서 왕을 안위하는 자로 종종 묘사되는 매우 높은 관직이었다. 그들의 의무는 왕의 포도주를 선택하고 시음하는 일이었다. 독이 고대에 암살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왕의 술 관원은 왕이 특별히 신임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였다.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환관이었다는 이론을 제시하나 증거 자료들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술 관원이 모두 환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결코 느헤미야를 환관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1:2-3. 느헤미야는 수사에 있는 동안 예루살렘의 상황들에 대해서 심란한 보고를 받았다. 수사는 페르시아의 행정 수도였고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왕국이었다. 그 소식은 아닥사스다 왕 1세의 통치 20년 기슬르월에 당도했다. 희안한 것은 왕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2:1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임에 틀림이 없다. 기슬르월은 히브리 달력으로 9번째 달이고 11월과 12월 사이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은 기원전 445년이다 (하지만 2:1에 대한 7과의 설명을 참조하라). 그 보고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와 그 일행이 전해주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척, 아마도 형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예루살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 (느 7:2). 우리는 그 일행이 공식적인 임무를 받고 다녀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최근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질문했다: 예루살렘의 상태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이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들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 보고는 암울했다; 예루살렘은 무방비 상태였다. 성의 안전에 필수적인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탄채로 남겨져 있었다. 게다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유대 거주민들은 심한 구속과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다. “업신여김”은 적들로부터 받는 수치스러움과 치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그 용어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관리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른 곳에 나오는 몇 개의 구절들에서 그들은 확실히 악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다 (에스라 4:1-5; 5:6-17; 느헤미야 4:1-8; 6:1-14).

느헤미야의 최초의 반응 (1:4)

그 보고는 느헤미야를 괴롭게 했다. 예루살렘과 그의 동족들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느헤미야는 그의 민족의 곤경을 위해 애도의 기간에 들어갔다. 그는 수 일을 울며 금식과 기도의 기간으로 들어갔다. 본문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기간을 가졌는지 말해주지 않지만,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왜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슬퍼했을까? 바빌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는 기원전 546년에 일어났었다, 그것은 느헤미야 시대보다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니가 전해준 예루살렘의 상황은 더 최근의 소식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에스라 4:8-23절은 아닥사스다 1세의 초기 통치 기간에 일어났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다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사마리아의 정치적인 이익에 위협을 주는 것이었다. 사마리아에서 온 두 관원 르훔과 심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인들이 왕의 허락 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고 불평하는 조서를 보냈다 (스 4:11-16).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움직임을 방지해 두면 페르시아 제국에 반기를 들게 된다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이전의 앗시리아 시대에도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아닥사스다

왕은 르훔과 심새에게 명령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중단시켰다 (스 4:17-22). 그 사마리아 관원들은 왕의 어명에 즐겁게 복종했고 무력을 사용해서 재건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다 (스 4:23). 이러한 사마리아의 도발은 하나니아와 그 무리들에 의해 설명된 그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느헤미야의 기도 (1:5-11)

1:5. 느헤미야는 이러한 보고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였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았고 그 보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느헤미야 책은 느헤미야가 어려운 시기마다 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4-5; 5:19; 6:14; 13:14). 이 기도는 가장 긴 기도이고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기도이다.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의 응답에 달려있었다. 그 기도는 신명기에서 발견되는 구절들과 내용들을 많이 끌어온 것이었는데, 몇 가지 요소들로 되어있다: 하나님께 말씀드림 (느 1:5); 죄의 고백 (1:6-7);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을 향한 행하심을 기억 (1:8-10); 그리고 간구 (1:11).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이름들을 부르며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늘의 하나님;” “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를 표현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했다 (신 7:9 참조).

1:6-7.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 “이슬엘의 자손” 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그 나라의 죄악을 고백했다. 이러한 점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세와 (출 34:9) 이사야(사 6:5)의 기도와 비교된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을 주목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었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 나라와 결속시켜서 느헤미야는 자기도 회개할 필요가 있는 무리 속에 포함시켰다. 자기 자신은 사실 하나님께 완전히 거역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던 조상들의 세대 속에 살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죄악은 어느 부분에서든지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1:8-10.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한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을 넘어서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속적으로 거역한 자들을 처벌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기억했다: 그들은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버릴 것이다 - 포로기의 경험과 똑 같이 말이다 (신 28:64).

하지만 기도는 또한 초대와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아오도록” 부르셨다. 예언자들은 종종 “돌아오라”는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반드시 죄의 고백 뒤에 따르는 행동을 가리킨다. 그 단어는 가던 길을 돌아 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 하셨다. 신명기는 이 구절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그 도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신 12:5, 11; 또한 신 4:25-31; 30:4절을 보라) 을 건축한 곳이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하나님께서 그 유랑기의 운명을 되돌려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을 내포했다.

1:11.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 가지 간구로 끝난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시기를 간구한 것이다. 약 네 달 동안 기도를 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 서서 유다를 위해 간청하는 것이었다. 유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보고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가 유다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강력한 힘을 가졌고 위험스러운 자이지만 그는 단지 인간일 뿐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습공과에 나오는 느헤미야에 관한 개요를 참조하라. 이번 과는 “일을 처리하기”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이 공부는 어떤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라. 이어지는 6개의 과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시키시는, 특히 어려운 상황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학습인도

2. 반원 중 한 사람이 느헤미야 1:1-3 절을 읽게하라. 학습공과에 있는 내용과 이 책인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성경주해”를 사용해서 느헤미야, 하나님,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소개하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하라. 3 절을 다시 한번 읽어라. 당시에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학습공과에 나오는 “성벽”에 대한 글을 참조하라.

3. 다음과 같이 말하라: 4 절은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여준다. 반원 중 한 사람이 4 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느헤미야의 처음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울었다) 다음과 같이 코멘트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정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눈물은 우리가 충격이나 고통이 있을 때 슬픔을 표출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다. 느헤미야는 또한 애도하며 금식했다. 그의 슬픔의 표현은 당시에 일반적인 것이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 어떤 소년들은 감정을 드러내며 우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교육을 받는다. 질문하라: 느헤미야의 경우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하는가? 반원들의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4. 느헤미야는 우는 것으로부터 애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질문하라: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때에 기도하는가? 칠판에 대답을 적어라. (예를 들면: 고난의 시기; 밥을 먹기 전; 교회에 있는 동안;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

5. 반원들이 5-11 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도록 하라. 우리의 기도예 모델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주목하도록 격려하라. 반원 중 한 사람이 5-11 절을 읽게하라. 다 읽은 뒤에, 질문하라: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무엇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예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대답이 될 수 있는 것들: 1:5, 감사; 1:6-7, 죄의 고백; 1:8-9,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 1:10-12, 간구.) 다음과 같이 언급하라: 느헤미야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에 근거한 것이었다. 어떤 방법은 “성경말씀으로 기도” 한 것이었다. 질문하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과 영감의 근원으로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말씀으로 기도” 하는 것인가?

적용격려

6. 다음과 같이 말하라: 기도는 역사한다! 고난의 세상에서 무엇인가 의미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는 역사한다. 삶의 방향이 필요할 때, 기도는 역사한다. 중요한 과업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결코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질문하라: 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드는가? (반원들이 대답할 시간을 주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진실로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7. 오늘날 반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반원 중 한 사람이 수업을 마치는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라.

<p>[제 7 과]</p>	<p>신중한 계획과 착수</p>
<p>핵심본문 느헤미야 2 장</p> <p>배경 느헤미야 2 장</p>	<p>학습주제 일의 진보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의지하면서 주의 깊게 짜여진 계획을 실행할 때 일어날 수 있다.</p> <p>탐구질문 다음 중 어느 것을 우리는 가장 게을리 하는가 -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계획을 짜는 것; 혹은 실행하는 것?</p> <p>학습목표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계획을 짜는 것,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에 실패하는 상황들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비교해본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느헤미야 1 장에 관한 수업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는지 보았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되었고 그 백성들은 수치와 절망감 속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이 곤경에 빠져있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이런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다. 아닥사스다 1 세의 술잔을 맡은 자로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명한 계획이 필요했다: 즉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을 위해서 말이다.

이번 과는 느헤미야가 구상한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일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험이 따랐고 극복해야 할 장벽들이 있었다. 느헤미야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기억해보라. 사마리아의 관리들은 유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최근에 보고했었다. 그 근거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건물들을 재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고에 놀란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일을 당장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에스라 4:8-23). 이러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그를 자신의 본향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설득하는 아주 민감한 과업을 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문해설

지혜로운 계획과 담대한 요청 (2:1-10)

수 개월 동안 기도한 결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받는 계획을 구상해낼 수 있었다. 그는 왕의 한 연회에 참석해서 부탁할 것이다. 페르시아 왕들은 종종 그러한 축제 기간에 신임을 받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곤 했었다.

2:1. 그 축제는 아닥사스다 1 세 통치 20 년 니산월에 있었다. 니산월은 3 월에서 4 월경이며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사용되던 바빌론 달력의 첫 번째 달이다. 1:1 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슬월, 즉 9 번째 달에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때도 아닥사스다 통치 20 년 이었다는 것을 배웠다. 이 두 날짜 사이의 관계는 학자들 간에 많이 논의되어 온 문제다.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날짜는 당시에 사용되던 두 개의 서로 다른 달력이라는 주장이 가장 적합한 대답인 것 같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은 이후 약 4 달이 지난 상태였다. 그 해는 기원전 445 년이다.

배경 설명에서 우리는 아닥사스다 1 세가 그의 통치 기간 내내(465-425 BC) 여러가지 반란들을 겪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집트는 페르시아에 몇 번 반란을 꾀하였다. 이러한 반란들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페르시아에 대한 더 많은 반란들이 일어날 가능성들, 특히 이집트와 가까운 지역들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

느헤미야에게는 불행하게도, 유다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페르시아에 대한 이집트의 공격을 보호해주는 완충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온 관리들의 보고에 근거해서 유다의 충성도에 대해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만일 그가 그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원했다면 느헤미야는 엄청난 용기와 지약이 필요했다.

페르시아의 연회들은 축제 기간에 있었다 (에스더 1:2-8; 다니엘 5:1-5 참조). 왕의 술잔을 맡은 자로서 왕은 느헤미야가 그 축제에 즐겁게 참여할 것을 기대했다. 이전의 축제 기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그의 슬픔을 숨겼었다. 아마도 왕이 그의 슬픔은 배반의 징조로 여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의 술잔을 바치면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는 깊은 슬픔을 볼 수 있도록 했다.

2:2-3. 느헤미야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느헤미야를 사로잡았다. 왕은 어쩌면 느헤미야가 어떤 음모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왕에게 충성스러운 존경을 표한 후, 느헤미야는 그의 걱정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의 조상들의 성이 파괴된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은 죽은 사람들은 적절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여겼던 고대 사회의 통념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고발을 받은 적이 있는 도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2:4.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해왔던 그 순간이 지금 다가왔다 (느 1:11).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 그리고 만일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의 백성들의 영화를 회복시켜 줄 적절한 사람 앞에 느헤미야를 놓으셨다. 아닥사스다는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싶은 것인지 느헤미야에게 물었다.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가 온 기회를 형통케 해주실 것을 기도했다. 아마도 그는 또한 그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2:5.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직접 대답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유다로 돌아가서 그의 조상들의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요청은 당돌한 것이었고 느헤미야의

목숨마저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지난 수 개월에 걸쳐서 기도 가운데 구상했던 신중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믿었다.

2:6. 아닥사스다는 단지 왕의 술잔을 맡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것인지 물으면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왜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했던 이전의 명령을 되돌렸는지 들은 것이 없다 (에스라 4:21). 아마도 그의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가 - 왕궁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리를 비울 것인지에 대한 왕의 질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준 것에 대한 적합한 이유일 것이다.

2:7-8. 느헤미야의 신중한 계획은 만일 왕이 그의 1차적인 요구를 허락하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을 예상했다. 안전한 여행과 협조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유르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왕의 친서를 요구했다.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커다란 행정 단위로 나누어서 사트라피라고 불렀다. 각각의 사트라피는 사트라프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장관이 다스렸다. 각각의 사트라프는 지방 총독에 의해 통치되는 몇 개의 좀 더 작은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유다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아우르는 다섯번째 스프라피 안에 속해 있었다.

건축 자재를 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젯거리였다.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왕실 숲을 알아보는” 아삽에게 필요한 목재를 주도록 친서를 요구했다. 비록 본문이 “왕의 숲”이 어디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목재는 우람한 백향목으로 유명한 땅인 레바논에서 왔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아삽”이라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인데 이스라엘을 그 목재의 근원지로 지목한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전 옆에 서있는 성채의 문들을 재건할 자재들을 요청했던 것이다 (2:8). 돌은 성벽을 짓는데 사용되던 주된 재료이었다, 하지만 성문과 성곽은 목재가 필요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된 성채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북쪽 지역을 보호하고 있었다. 후에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로 북쪽 같은 장소, 혹은 근처에 안토니아 성채를 세웠다. 느헤미야는 또한 그 재료 중 일부는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새 집을 세우거나 혹은 남아 있는 집 들 중 하나를 수리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짰다. 느헤미야의 친척들은 예루살렘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5:14-18 참조).

느헤미야의 신중한 계획은 그 가치를 발휘했다; 왕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계획의 성공에 대한 이유를 아닥사스다와의 면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돌렸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2:9-10.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에스코트- 아마도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의 총독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신경이 거슬리게 되었다. 이것은 느헤미야 책에서 느헤미야의 일에 대한 반대의 첫 번째 힌트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의 내용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주제이다.

최초로 반대하는 일이 두 명의 총독으로부터 왔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영토의 총독이었다. 앗시리아인들은 722 B.C.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후 사마리아를 한 관할구로 세웠다 (왕하 17 장). 느헤미야 시대에 사마리아와 유다사이에는 상당한 정치적 라이벌 구도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산발랏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와 그의 아들들 델라이아와(Delaiah) 셸레미아(Shelemiah)는 기원전 408 년의 이집트 문서에서 언급되고 있다. 산발랏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신앙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호론”은 아마도 산발랏이 베드호론 위, 혹은 아래 쪽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베드호론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산발랏의 딸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인 엘리아십의 아들과 결혼했다 (느 13:28).

암몬 사람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사명에 반대하는 산발랏에 동조했다. 도비야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지도 모른다. 비록 도비야의 직분이 불분명 하지만 그는 아마도 요단강 건너편 유다의 동쪽에 위치한 암몬 지역을 관리하는 페르시아 관리였을 것이다. 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총독들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관심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공격받고 시민들이 말살되기 쉬운 상태로 있기를 바랐다.

필요를 조사함 (2:11-16)

2:11-12.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벽들을 조사했다. 그의 적대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계획을 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느헤미야는 오직 믿을만한 사람 몇 명만을 데리고 밤 늦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조사했다. 그 도시의 리더들조차 그 여행을 알지 못했다.

2:13-16. 느헤미야의 시대에 예루살렘은 오직 동쪽 언덕부분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은 성전과 깊은 계곡이 삼면으로 둘러싸인 다윗 성이었다. 서쪽 언덕에 있었던 이전의 거주지역은 바빌론의 침략 이후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다. 느헤미야는 작은 동물, 아마도 나귀를 타고서 그의 조사를 착수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서쪽부터 시작해서 동쪽을 따라서 북쪽 방향으로 즉,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3-15). 기원전 536년에 바빌론에 의한 그 파괴는 기드론 계곡 위 예루살렘 동쪽 비탈지역에 그대로 남겨졌다. 나귀를 타고 계속 여행을 할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나귀에서 내려서 골짜기문으로 되돌아가기까지 걸어가면서 조사를 했다.

행동을 취함과 친조의 반대 (2:17-20)

2:17-18. 느헤미야가 발견했던 것은 비참한 것이었다. 성문들은 부서져 있었고 중요한 성채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2:17). 예루살렘은 여러 곳으로 공격받기 쉬운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그는 행동을 취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리더로서 그는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동참했다.

관리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나누고 이 일이 왕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했을 때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 하였다 (2:18).

2:19-20.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반대 세력이 일어났다. 산발랏과 도비야에 가세한 아랍사람 계셈은 그 프로젝트를 비웃었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 대항하여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계셈은 유다의 남부와 동남부에서 이집트로 가는 무역로를 통제하는 아랍의 족장이었다. 이 세명은 합세해서 느헤미야의 과업을 방해하기 위해 공갈과 협박을 가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의 힌트를 봐야 하는데, 악마는 이 일에 대한 반대는 악마가 배후라는 것이다. 악마는 항상 어둠 가운데서 잠복해 있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뒤 얹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여기까지 인도하히고 놀랍게 이 일을 성취시키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답했다. 그는 그의 적대자들이 유다의 일에 관여할 어떤 합법적, 종교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어떠한 인간의 반대도 모든 인류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교회가 우리 반에게 이 일을 추진하는 책임을 맡겼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건축 추진위원회”이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게 될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반원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철판에 반원들의 대답을 기록하라 (가능한 대답들: 크기를 결정한다; 장소를 결정한다; 건축가를 고용한다; 기금조성을 결정한다; 계획을 짜고 여러 차례 검토한다; 교회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다; 기도한다.)

2. 질문하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계획을 시작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반원들의 대답을 들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라.

학습인도

3. 다음과 같이 말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혹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한 예를 느헤미야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의 상황을 설명하라:

- 그는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다.
- 그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책임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직업은 만일 누가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면 위험해 처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느헤미야가 왕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고국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 그 도시는 바빌론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6.25 전쟁후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라).

4. 다음과 같이 말하라: 느헤미야 2장을 읽으면서 다음 세 가지에 특별히 주목하도록 하라: 기도의 역할; 계획을 짜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반원 중 한 사람이 느헤미야 2:1-3 절을 읽게 하라. 질문하라: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 할 것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는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그냥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대답을 들어보라.)

5. 반원 중 한 사람이 느헤미야 2:4-9 절을 읽도록 하라. 질문하라: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는 기도했다.) 코멘트 하라: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17 절의 아주 좋은 예이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 했다.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로 예시될 수 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해왔던 계획을 왕과 함께 나누었다. 질문하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6. 느헤미야 2:10 절을 읽어라. 언급하라: 모든 것이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비난을 접한다. 당신은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의 노력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가?

7. 2:11-12 절을 읽어라. 질문하라: 왜 느헤미야는 그의 처음 조사를 은밀하게 행했다고 생각하는가?

단원 4. 느헤미야: 일을 처리하기

8. 느헤미야가 2:13-16 절에서 조사했던 것을 요약하라.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관련시켜서 설명하라. 질문하라: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얼마나 균형을 유지하는가?

9. 언급하라: 느헤미야가 그 도시를 조사하고 그의 방법들을 심사숙고한 이후, 그는 마침내 그의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공포할 준비가 되었다. 17-20 절을 읽어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자신의 계획을 나누었을 때 틀림없이 매우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마도 그 이야기가 18 절에서 끝났다면 완벽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종종 그렇듯이,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용기를 잃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욱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반대세력의 방해에 흐트러지지 않고 일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20 절을 다시 한번 읽어라.

적용격려

10. 언급하라: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신중한 계획 위에서 행동이 취해질 때 주님의 역사 가운데 가능해질 수 있다. 질문하라: 다음 중 어느 것들이 당신이 가장 많이 무시하는 것이고, 가장 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계획을 짜는 것; 행동을 취하는것? (반원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요약하라: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를 균형있게 보여준 본보기이다.

11. 학습공과에 나오는 참고 내용의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참조하라. 반원들이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다 한 뒤에, 그들이 접하고 있는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상황과 이 본문에서 그들이 취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행동이 무엇인지 반원들이 말할 수 있도록 요청하라.

12.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짚 신중한 계획 위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제 8 과]</p>	<p>비판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p>
<p>핵심본문 느헤미야 3:1-12; 4:1-6</p> <p>배경 느헤미야 3--4 장</p>	<p>학습주제 비판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중요한 목표를 향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p> <p>탐구질문 만일 오늘날 당신이 한 마디의 비판을 듣고 100 마디의 칭찬을 듣는다면 오늘 밤 잠자기 전에 어느 것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겠는가?</p> <p>학습목표 비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수업은 느헤미야가 단지 비판정도가 아니라 그의 과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격의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작업이 어떻게 지방의 관리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비판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느헤미야 3 장은 얼마나 다양한 우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보호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지 자세하게 묘사한다. 이는 느헤미야가 모범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능력있는 행정가였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4 장은 적대자들에 대한 내을 다시 소개한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지방의 관리들은 느헤미야에 의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의 강화를 위한 공사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들의 수단은 조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시도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의 적대자들에 의해 계획된 공격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놀라운 전략을 개발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본문 해석

예루살렘 축성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일함 (3:1-32)

느헤미야 3 장은 예루살렘 벽들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의 여러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는 52 일이 걸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느 6:15-19). 4 장과 5 장은 공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하지만 하나된 백성들 (3:1-12)

이 장에서 한 가지 깜짝 놀랄 사실은 예루살렘 재건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의 다양성이다. 백성과 제사장 사이의 어떤 구분도 없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유다 전역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나란히 일했다 (3:1). 세공장과 향품 제조업자 (3:8), 상인들 (3:32), 그리고 도시의 책임자들 (3:9, 12, 17)이 레위 지파와 함께 일했다. 공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농부였으며, 이는 5 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 아버지는 심지어 그 공사에 자기의 딸들을 동원했다 (3:12). 자원자들은 비단 예루살렘에서만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 있는 촌과 마을에서 왔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여리고 (3:2), 드고야 (3:5, 27). 기브온 (3:7), 미스바 (3:7), 사노아 (3:13), 벧학게렘 (3:14), 그리고 그일라 (3:17)에서 왔다. 오직 드고야에서 온 “귀족들” 만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었는데, 아마도 근처의 지역을 통치하는 게셈이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3:5); 하지만, 드고야에서 온 다른 사람들은 공사에 동참했다 (3:27). 여러 곳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일했다: 예루살렘의 벽을 재건하는 것.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주고 있다. 기원전 586년 그 도시에 대한 바빌론의 공격은 모든 성벽들과 성문들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부분은 수리할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새로 건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프로젝트는 예루살렘 전체의 요새화였다; 수리를 위해서 40 가지 이상의 작업이 요구되었다.

본 장은 성전 근처인 그 도시의 북동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어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행된 공사를 묘사해주고 있다. 작업 인부들은 가족들이나 혹은 성벽이나 성문의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같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이 그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들을 수리했는데 (3:23, 29, 30), 이는 특히 효과적인 동기를 부여해주었다. 본문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다음은” 하나의 주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조직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재 강화 시키는 이상의 효과를 이루었다. 그 프로젝트는 다양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 되게 묶어주었다. 그 희생과 수고는 백성들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 동등하게 자발적으로 행해졌다.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떤 강렬한 비판 앞에서도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었다.

비판이 폭력으로 바뀌다 (4:1-6)

4:1. 느헤미야의 적들은 곧 유대인들이 그 재건 공사에 매우 열심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은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행동을 취하게 만들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앞장서서 적대했다. 우리는 7장에서 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와 암몬의 지방 총독이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다.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약하고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리했던 것이다.

4:2-3. 산발랏은 이미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느헤미야를 반란죄로 모함을 했었다 (2:19; 6:5-8 절 참조). 이제 산발랏은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듣는 데서 유대인들을 분산시키고 그의 지지자들을 더욱 단결시키기 위해서 5 가지의 빈정대는 질문을 던졌다. 5 절은 산발랏의 목소리와 표정들이 그 벽 주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산발랏은

그때로부터 300년 전에 (왕하 18:19-25) 앗시리아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술수와 비슷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산발랏의 첫번째 질문은 그들 앞에 있는 거대한 과업에 비해 유대인들의 힘없는 노력들을 조롱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너희 유대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두번째 질문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냐?” 혹은 “그들이 그들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이냐?:”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당신들은 정말 이 부서진 잡석들을 가지고 하룻밤에 성벽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요?”

세번째 질문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었다. 그 질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제사들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을 재건하는 이 어리석은 요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마지막 두 질문은 그들의 건설 계획을 비웃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루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이냐?” 는 그들이 그 프로젝트를 하나의 소풍처럼, 금방 끝날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 조롱은 그 벽들의 파괴된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빌론인들은 옛날에 그 튼튼한 벽들을 부수고 태워버렸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러한 “잡석들” 이 새로운 성벽으로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4:4-5. 그의 적대자들로부터 조롱을 듣고 그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기도는 느헤미야가 고통의 시기에 가장 첫번째 하는 반응이었다. 그가 처음에 수사에서 예루살렘이 곤경에 처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로 나아갔다 (느헤미야 1 장). 하지만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간 다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구했다.

그 기도의 언어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며 울부짖었던 시편의 기도와 비슷하다 (시 35; 58; 59; 69; 109; 137, 또한 렘 18:23 을 보라). 그러한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악한 자들을 눈감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오랜 기간의 수치와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했다.

4:6. 그 집요한 조롱은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성을 쌓는 일을 계속 하였으므로”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못했다. 기를 죽이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의 “반 정도” 높이를 쌓았다. 비록 성 입구의 문들이 아직 제 자리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6:1-3), 일꾼들은 예루살렘의 안전을 회복하는 공사의 큰 단계들을 지나가고 있었다.

공격할 음모와 놀라운 방어 (4:7-23)

4:7-12. 일꾼들의 성공적인 공사 진척에 놀란 느헤미야의 적대자들은 그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다. 산발랐은 아스돗 사람들을 비롯한 다른 우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할 음모를 꾸몄다 (4:7-8, 11). 적들은 지금 예루살렘 사방을 에워쌌다: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 사마리아인들은 북쪽; 아랍인들은 남쪽;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동쪽. 이에 대해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지키게 했다 (4:9).

느헤미야는 또한 공사에 대한 내부적 위협을 접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노동은 일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 (4:10). 완전히 지친 일꾼들은 경계에 소홀했고 당연히 그들은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4:11). 아마도 완전히 지쳐버린 일꾼들은 바로 그 공사를 그만 뒀던 것 같다 (4:15).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있었다: (1)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 그리고 (2) 코 앞에 닥친 공격에 노출된 일꾼들을 보호할 계획을 짜는 것.

4:13-15. 13-15 절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의 순서는 명확하지 않다. 느헤미야는 각 가문별로 사람들을 얼마씩 나오게 해서 무장을 시킨 뒤 성벽 밑 빈터에 배치해 두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러한 군사적 배치를 보여줌으로써 적이 공격하는 것을 최소한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얼굴에서 “두려워 하는” 것을 (4:140 보았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선언하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독려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둘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그 계획은 통했다. 산발랏과 그의 종개들은 유대인들이 정신무장을 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그 공격을 미루었다. 느헤미야에 의해 용기를 얻은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4:15).

4:16-23. 느헤미야는 나중에 닥칠 공격으로부터 일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고안했다. 그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온 그의 신하들 반을 취해서 중무장을 시킨 뒤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벽 주위에 배치시켰다 (4:16). 그 다음 그는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게 했다. 일꾼들은 두 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칼을 “허리에” 차게 했다 (4:17-18).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의 신호에 싸울 태세를 하고 있었다.

그 성벽은 매우 긴 길이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일꾼들이 공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시스템을 구축했다 (4:19-20). 밤의 급습을 피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취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4:22). 느헤미야와 그 무리들은 무기를 가까운 곳에 놓고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는 본을 보였다 (4:23).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다음과 같이 말하라: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예를 들어 회식, 파티, 졸업식, 가을 축제, 혹은 결혼식 피로연 같은 것을 생각해보라. 질문하라: 당신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셋업 하는 일과 끝난 뒤 치우는 일 중 어느 일을 하고 싶은가? 왜 그런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2. 1 번에 이어서 말하라: 당신이 똑 같은 수의 일꾼들을 데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행사를 셋엿하는 것이 치우는 일보다 두 배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을 전문가들이 완전히 부서뜨리는 시간은 똑 같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부정적인 말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섯 배의 칭찬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질문하라: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말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왜 그런가?

학습인도

3.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가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과 대적 세력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하라. 학습목표가 당신이 어떤 일, 특히 당신이 무언가 좋은 일 하려고 할 때, 비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 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라. 느헤미야 3 장을 펴게 하라.

4. 본 장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관련된 공사를 묘사하는 세 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언급하라. 반원들이 느헤미야 3:1-12 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반은 반복되는 구절이나 의미를 주목하고 나머지 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에 참여했는지 세도록 하라 (약 1 분 정도의 시간을 주라). 질문하라: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가능한 대답: 다양한 문들이 세워졌다, 혹은 여러 가문들이나 백성의 무리들에 의해 재건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룹들이 참여했는가? (3:1-12 절에 20 명 이상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고, 3 장 전체에 41 개의 그룹이 언급되었다.)

5.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참조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어떻게 무리들을 나누었고 그 일이 51 일 만에 완수되었는지를 설명하라 (느 6:15 절 참조). 작업 그룹의 다양성을 언급하라. 질문하라: 이 구절들에서 느헤미야의 본보기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가능한 답변들: 과업은 나누어질 때 관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모든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6. 언급하라: 느 3:13-32 절은 건축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다시 언급한다. 느헤미야 4 장에서 두 사람이 그 이야기에 다시 등장한다. 4:1-3 절을 읽어라. 질문하라: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 일꾼들이 산발랏과 도비야로부터 그러한 비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반원들의 대답을 들어라)

7. 반원 중 한 사람이 4:1-6 절을 읽게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느헤미야가 비판과 반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하도록 하라. 반원들의 대답을 들어보라. 느헤미야가 기도로 반응했다는 것을 주목하라. 필요에 따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성경주해”에 나오는 내용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하라.

8.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다는 점을 지적하라. 느헤미야는 비판이 주님의 일을 멈추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4:12-23 절의 내용을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를 활용해서 요약하라.

적용격려

9. 학습공과의 질문에 주목하게 하라. 각각의 질문을 토론할 수 있도록 문제 별로 그룹을 나누도록 하라. 필요하다면 한 그룹에 두 문제를 주도록 하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대답들을 들어보라.

10. 질문하라: 만일 오늘 당신이 한 마디의 비판과 100 마디의 칭찬을 듣는다면, 오늘밤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떠오르겠는가? (반원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비판이 우리를 침울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몇 가지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반원들을 이끌라. 그런 다음에 반원들이 비판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나눌 수 있도록 하라.

11. 반원 중 자원자 한 사람이 학습공과에 나오는 “적용 및 실천”의 마지막 문장을 읽게하라.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제 9 과]</p>	<p>신실하게 행동하라</p>
<p>핵심본문 느헤미야 5 장</p> <p>배경 느헤미야 5 장</p>	<p>학습주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평과 관용으로 행하고 사람들이 억압받을 때 불의에 맞서야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다.</p> <p>탐구질문 힘 없는 사람들이 불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실까?</p> <p>학습목표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하게 행동하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길들을 파악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전 과인 느헤미야 3-4 장 공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에 의해 시작된 프로젝트가 어떻게 외부적 위협에 부딪혔었는지를 보았다. 느헤미야는 비판과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자들의 행동들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관여하시고 완수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함으로써 정면대응했다.

느헤미야 5 장은 매우 다른,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정도로 그 잠재적 위협이 더욱 심각한 것들을 설명한다: 일꾼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유다 동족들에게 경제적 억압을 받고 있었다.

경제적 위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름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했다.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여전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과 불공평과 억압의 피해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오늘 과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질문들을 일으켰던 위기에 대해 대응했었는지 공부하게 될 것이다.

본문 해석

일꾼들의 착취 (5:1-5)

5:1. 이때까지 단합하여 예루살렘 성 중건에 열성을 다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원망을 발하였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이 인류 사회의 성격이다. 그 불평의 원인은 물질 문제였다. 육에 속한 인류의 불평이 표면상으로는 옛날부터 경제 문제에 있었다. 초대교회의 화평스럽던 분위기에 도 물질 문제로 인하여 불평이 있었다 (행 6:1).

본문의 배경으로 우리는 성벽 공사를 하는 일꾼들의 대부분이 소작농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종종 수확이 끝나고 그 다음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릴 때 즘에 돈을 빌리곤 했는데, 이때 돈을 빌려주는 관리들이나 부자들은 그들의 땅이나, 포도원, 혹은 집을 담보로 잡게 했다.

가뭄은 이스라엘에 늘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확이 실패할 수도 있었고 많은 빚을 갚기엔 턱 없이 부족하게 수확할 수도 있었다. 결국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빚을 갚기 위해 자식들을 팔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지금 남자들은 성벽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남겨진 여인들의 짐은 더욱 가중되었던 것이다.

5:2-3. 백성들에 의해 제기된 공동체의 문제점들은 식량난, 빚에 의한 인신 매매였다. 느헤미야의 부임 이전부터 흉년으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은 이미 존재했었을 것이며, 더욱이 페르시아인들이 지방의 속령들로부터 여전히 해마다 많은 양의 공물을 세금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성벽 공사가 많은 사람을 동원시킴으로 인해 기근 사태가 더 악화 되었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인신매매는 약간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일꾼들은 실재로 살기 위해 먹을 음식을 위해 그들의 자녀들이 돈을 빌려준 부자들이나 관리들을 위해서 노동담보를 해야 되었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두번째 원성은 빚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 의해 요구되는 담보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5:3).

세번째 그룹은 매년 땅의 소산물에 대한 페르시아 왕들에 의해 징수되었던 왕궁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렸던 사람들을 나타낸다 (5:4).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땅을 담보로 사용했었는데, 닥친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생계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당시와 관련된 이집트의 자료들에 따르면 한번 세금을 늦게 내게 되면 담보를 잡힌 사람은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법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빚에 대한 노예생활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엄격하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관습은 위법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세의 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령했다. 율법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출 22:25; 레 25:35-37; 신 23:19-20). 담보는 용납되는 것이었지만 율법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었다 (신 24:10-13; 출 22:26-27)

율법은 매 7년마다 빚진자의 빚을 탕감해주도록 되어 있다 (신 15:1-6)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람을 담보로 잡는 것 역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지만 유다 동족들 가운데서 엄격히 규제되었다 (출 21:2-11; 레 25:39-55; 신 14:12-18).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은 다른 사회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이러한 관습에 있어서 매우 관용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

5:4-5. 불행하게도 탐욕적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약자와 고통받는자들을 보호하는 율법을 무시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대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나?” 는 구절은 이 빚쟁이들이 유다 동족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동족들을 이용해 먹고 절망가운데 빠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갚지 못한 빚 대신에 노예로 데리고 가버렸던 것이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어떤 가족들의 딸들은 빚쟁이의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이 있다” 는 구절은 원어를 살펴 볼 때 빚쟁이들이 가족들이 갚지 못한 빚 대신에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도록 강요했다고 볼 수도 있다 (에 7:8).

느헤미야의 대응 (5:6-13)

5:6-7. 이러한 착취의 보고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곧바로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행습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교정되어야 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성질을 부리는 것을 거부했다. 급격한 징계는 종종 더 심한 불의를 낳는다.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느헤미야는 리더격이 되는 부자들과 관원들을 사람들 앞에 불러 모아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비록 어떤 유대인들은 유다 동족들에게 율법에 어긋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정죄 되었지만 본문은 빛에 비해 과다한 것들을 요구하는 행습을 말하고 있는 듯 하다 (느 5:11).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5:8. 느헤미야는 도덕적 파산을 지적하고 그 부조리한 상황을 책망했다. 유다 공동체는 이미 빛을 못 갚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팔아 넘기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빛에 대한 저당물을 찾아갈 권리를 잃게 하는 것과 재산을 몰수하는 것에 의해 유다 빚쟁이들은 동족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느헤미야의 정죄한 지적들이 사실이였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말 할 수 없었다.

5:9.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 (사 42:6)으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촉구했다. 구약 성경에서 “두려움”은 진정한 사랑을 기초로 한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5:10-11. 느헤미야는 이러한 행습들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그는 그와 자신의 가족이 동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악한 행습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러한 불의에 대해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동족에게 저당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당장 멈추게 했으며 이미 갈취한 재산들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제시는 율법이 돈을 빌릴 때 저당물을 빼앗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급진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월한 것이다.

5:12-13. 그 사람들은 그 제안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갈취했던 땅이나 소유물을 돌려주고 더 이상 저당물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곧 불러서 그 사람들이 맹세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했다. 그 맹세의 신중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모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상징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는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누구든 이 맹세를 어길 시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다 털어버릴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 모임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으로 외치며 마쳤다. 비록 본문은 모든 백성들이 그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확증했다고 말하지만 본문의 “모든”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성경에서 “대부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들의 행한 진실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뛰어난 본을 보임 (5:14-19)

14 절에서 19 절은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총독으로 있을 때의 관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445-433 BC; 5:14) 임명으로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배운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을 섬기게 된다 (13:6-9). 그의 전 통치 기간을 통해 느헤미야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된다.

5:14-16.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는 녹을 받기를 거부했다 (5:14-18). 그 수당은 하루에 40 세겔이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걷어진 세금이었다. 느헤미야는 그 세금이 일부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버티기 힘든 짐이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았다 (5:4). 이전의 총독들은 또한 유다의 일반 시민들에 비해 호화스럽게 살았던 관리들의 필요를 위해 빵과 포도주도 걸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자신 이전의 총독들의 관행을 거부하고 백성들의 복지를 위한 양식을 세웠다. 느헤미야와 그를 호위했던 관리들은 백성들과 함께 성벽에서 일했다 (5:16). 그의 존재는 일꾼들에게 상당한 격려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며 백성들의 안전까지 보장해주었다. 그는 자기의 직분을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추호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밭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이 구절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서 어떤 물질적 이득도 취하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한 것을 보여준다.

5:17-19. 느헤미야는 자신의 공무를 사적인 자원을 들여서 운영했다. 그는 자기 상에서 먹는 공무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을 포함한 150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공급했다. 이러한 놀라운 자비는 두 가지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1) “하나님이 두려워서” (5:15); 그리고 (2) 관청을 위해 징수되는 물자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5:18).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함”의 개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등한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을 두려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핵심적인 행동 동기였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5:18).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불공평해!” 라고 칠판에 적어라. 질문하라;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당신은 이러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반원들의 반응을 들어라. (학습공과 9 과의 개요부분을 참조하라). 질문하라: 당신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당신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부모들은 이러한 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반응을 들어보라.)
2. 때론 우리의 삶이 불공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언급하라.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대응하고, 버텨내고, 혹은

그런 불공평한 상황을 견디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일어난 불공평과 불의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질문하라: 어떤 예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가능한 대답들: 태종의 아이의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언급하는 것;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 하는 것.)

학습인도

3. 다음 아웃라인을 전시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적합한 요점을 지적하라.

- (1) 불의를 이해하기 (5:1-5)
- (2) 불의를 바로잡기 (5:6-8)
- (3) 불의를 해소하기 (5:9-13)
- (4) 불의를 방지하기 (5:14-19)

4.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를 활용해서 느헤미야서의 이 요점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라. 언급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다. 첫번째 요점을 주목하고 반원 중 한 사람이 5:1-5 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이 구절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반원들이 대답하도록 하라) 학생들의 코멘트를 보충하기 위해서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라.

5. 두번째 요점을 주목하게 하고 반원 중 한 사람이 5:6-8 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당신은 그가 적합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그들을 정면으로 대응하기 전에 귀족과 관리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하라: 당신이 사는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분을 낸 적이 있는가? 그 불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반원들의 대답을 들어라)

6. 세번째 요점을 주목하게 하라. 5:9-13 절을 읽어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부분을 활용해서 그 구절들을 설명하라. “귀족과 관리들” 비싼 이자(백분지의 일)을 돌려주기로 한 것과 그들의 맹세를 지키도록 서약하게 한 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7. 마지막 요점을 주목하게 하라. 반원들이 5:14-19 절을 소리내지 않고 읽게하라. 질문하라;
느헤미야는 그의 행동과 말들로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따르게 했다. 그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도
솔선 수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언행이 일치되는 본을 보여주었다.)

적용

8. 학습공과에 나오는 “동의/반대”에 대한 내용을 반원들과 함께 나누라.

9. 반원들이 오늘 배운 본문 속에서 그들이 실제 생활에서 위대한 통전성(integrity)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라. 배운 말씀대로
행동하는 용기와 기회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수업을 마치라.

<p>[제 10 과]</p>	<p>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기</p>
<p>핵심본문 느헤미야 7:73b; 8:1-4a, 9-18</p> <p>배경 느헤미야 7:73b—9:38</p>	<p>학습주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다.</p> <p>탐구질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한다면 어떤 유익이 일어날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나, 우리 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오늘의 교훈은 회복된 유다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성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느헤미야 8--10 장은 에스라가 이끈 위대한 부흥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새롭게 하도록 이끌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이끌었다.

우리는 본 장에서 느헤미야서에 잠깐 나오는 에스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학자들은 본 과의 장들이 에스라 7--11 장에 묘사된 에스라의 이전 사역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1세 제 7년인 기원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일단의 유다 공동체를 바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다 (7:1-8:31).

에스라는 율법 사본을 가지고 다녔다. 에스라는 도착해서 곧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실을 발견하고 (에스라 9:1-4) 이 문제를 곧 다루었다 (9:5-10:44).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원전 445년에 도착하고 나서야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만일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3년 앞서서 왔다면, 왜 그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일어난 위대한 부흥을 이끄는 데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을까? 느헤미야 8-10장이 그 서신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장들은 본래 에스라 8장, 혹은 에스라 10장 뒤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몇 달 뒤에 그 부흥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설은 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본 과에서 느헤미야 8-10장에 묘사된 사건들을 느헤미야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본문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갈망과 깨달음(7:73b-8:8)

7:73b-8:3. 성벽을 재건한 뒤에 백성들은 유다에 있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삶은 더욱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들에게 불만이 일어났다. 일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읽어주기를 청했다. 그 책, 혹은 이 경우 그 두루마리는 아마도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는 모세 오경, 혹은 토라라고도 불린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일곱번째 달 (9월 ~10월)에 모두 모였다. 일곱번째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 가장 거룩한 달이다. 이 달에는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절기들, 예를 들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에스라 3:1절에 관한 2과의 설명을 참조하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수문의 위치는 아마도 예루살렘 동쪽 기혼 샘물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젊은 층을 가리키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알아듣다”로 번역된 단어는 본 장에서 중요하다 (8:2, 3, 12). 그 용어는 듣는 사람이 그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4-8. 4-8 절은 성경에 집중된 예배를 묘사하고 있다. 양쪽에 백성들의 동네 지도자들이 서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날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단 위에서 말씀을 읽었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기대가 가득찬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8:3). 그가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사람들은 경외의 표시로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주님을 찬양하면 모인 백성들은 “아멘, 아멘” 으로 화답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손을 들며 동의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땅에 댔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였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자세이기도 했다 (시 134:2).

8:7-8. 레위 지파가 그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레위 지파의 책무 중의 하나는 율법 가운데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신명기 33:8-10; 역대지하 17:7-9).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마도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더욱 많은 레위지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특별히 애를 썼다 (에스라 8:15-20).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듣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서있는 가운데 움직였다 (느 8:7). “통역” 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람어는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였고, 많은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마도 레위 지파는 모세의 율법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하여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통역” 은 또한 “설명했다” 는 의미로서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듣는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하나님과 성경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다 (8:9-12)

8:9-10. 백성들은 율법의 일부가 읽혀지는 것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 율법을 듣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였다. 하지만 에스라는 비록 죄의 고백과 회개가 필요한 날이었지만 그날을 슬픔의 날로 기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9-13). “주님의 거룩한 날” 을 선포하면서 에스라는 무리지어 서있는 백성들에게 울기를 멈추고 축제를 명했다.

거룩한 날을 선포하면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거룩한 날들과 축제의 절기들은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지 슬퍼하는 날이 아니었다 (신 12:11-13, 18; 16:9-12).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위들을 회고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숭회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토라를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 토라는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샘물이었다 (신 28; 시 19:7-10).

8:10.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기뻐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되는 법입니다.” “힘”은 또한 보호하심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한 자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드러내준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을 거역한 자들이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그 축제는 썰은 고기와 (“비개”) 달콤한 음료, 아마도 포도주가 포함된 나눔의 식사였다. 아무도 떠나지 않도록 “아무 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들을 준비하게 했다. 이 구절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 대한 에스라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8:11-12. 레위 지파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은 걱정이나 슬픔을 멈추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단어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시 46:10). 백성들은 에스라가 명령한대로 했고 위대한 절기를 축하했다. 백성들이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만들었다.

초막절을 준수함 (8:13-18)

8:13-15. 많은 백성들은 회합한 후 그날에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갔다. 에스라는 일곱째 달에 - 총회가 있던 있던 바로 그달에 초막절을 기념하라는 명령이 담긴 말씀을 읽었다. 율법을 순종하는 열심으로 그 지도자들은 그 위대한 절기를 준비하고 축하하도록 온 마을에 소식을 보냈다.

몇 개의 본문들이 초막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출 23:16; 레 23:33-43; 민 29:12-38; 신 16:13-15). 이 가을 절기는 그 달의 15일에 시작되었고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 하루의 거룩한 집회가 즉시로 이어졌다. 초막절은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기념했는데, 두 행사 모두 축하의 날이었다.

첫째로, 그 절기는 마지막 여름 수확이 끝나는 날을 표시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그 절기 이름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출 23:16). 둘째로, 그 절기는 출애굽기의 사건들, 특히 광야를 돌아다니던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할 때 장막에서 살았던 때를 회고하는 날이었다 (레 23:42-43).

8:16-18.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그 선포에 반응했고 초막을 짓는데 필요한 가지들을 주위에 있는 언덕들에서 구해왔다. 예루살렘은 축제의 장소였다. 각 가족은 그들이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초막을 지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집의 지붕을 사용했고 예루살렘 밖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 곳이나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지었다 (느 8:16). 느헤미야 기자는 참여한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들이었던 “사로 잡혔다고 돌아온 사람들” (8:17)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표기했다.

17 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수 백년 전인 여호수아 시대 이후와 똑 같은 방식으로 이 절기를 기념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한다. 무엇이 달랐는가? 그 대답은 그 축제와 광야 기간동안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와진 강조점일 것이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제의 농사적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잊어먹었거나, 혹은 무시했을 수도 있다.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 발견된 가르침들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 축제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돌보심을 기념하게 했다.

에스라는 각 날의 축제에 대한 율법서를 읽어주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다 (느 8:18).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일주일 동안 지속된 축제 기간 걸쳐서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 축제의 결과로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 요구된 엄숙한 집회로 모였다.

고백 (9:1-4)

9:1. 느헤미야 9 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한다. 그 엄숙한 집회는 깊은 슬픔 가운데 진행되었다. 축제는 붉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며 금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픔의 표시였고 (창 37:4; 삼하 3:31; 왕하 19:1) 회개의 표시였다 (단 9:3-6). 먼지와 재로 머리에 뿌리는 것 또한 슬픔과 한탄의 표시였다 (수 7:6; 욕 2:12; 애 2:10).

9:2. 엄숙한 집회의 부분으로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왔다. 분리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자신들을 헌신하는 것을 상징했다 (레 20:26). 그 집회(총회)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느 9:2). 고백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최근에 토라를 들었던 백성들로부터의 반응을 기대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그들이 얼마나 떨어져 살아왔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9:3-4. 레위인들은 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세 시간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게 했다 (9:3). 그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니었고 말로만 하는 값싼 것이 아니었다; 모인 그들은 진정한 죄책감을 표현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그들은 죄악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영적 노예와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다.

9:5-38. 느헤미야 9장의 남은 구절들은 레위인들의 긴 기도 내용이다 (9:5-37). 그 기도는 이스라엘의 길고 긴 불순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9:6-31).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9:32-37). 마지막 행동으로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9:38-10:39).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다음과 같이 말하라: 부흥 집회는 이전에는 침례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처럼 흔한 것이었다.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이러한 집회를 정기적으로 행한다. 질문하라: 무엇이 그 부흥집회의 목적이었는가/목적인가? 대답할 시간을 주라. (가능한 대답: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격려하는 것, 죄를 고백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특히 잃어버린 영혼들과 나누는 것.) 질문하라: 당신이 이 시간 반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억할만한 부흥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학습인도

2. 계속하라: 느헤미야에 있는 오늘의 수업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기본을 둔 부흥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다음 아웃라인을 칠판에 전시하거나 써라:

- (1) 하나님의 말씀을 청함 (느 7:73b-8:1)
- (2)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 (8:2-4a)
- (3)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 (8:9-12)
- (4)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 (8:13-18)

3. 느헤미야 7:73b-8:1 를 읽어라. 다음과 같이 코멘트 하라: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결과로써 오는 것이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것을 청한 것을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기를 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것을 청했던 것이다. 반원 중 한 사람이 8:2-4a; 5-6 절을 읽게하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읽을 때 서서 경청했다. 아마도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얼굴을 땅에 조아렸다. 질문하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는가? 대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계속해서 말하라; 이것을 소리내서 말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경외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 말씀이 당신 삶의 가이드가 되는가? 잠시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라.

4. 반원 중 한 사람이 8:9-12 절을 읽게하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 구절들은 부흥 집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부흥이라고 그들이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영해준다. 성경에 의해 찢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반원중 한 사람이 역대하 7:14 절을 읽게하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여름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축하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가? 반원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라.

적용격려

5. 반원 중 한 사람이 8:13-18 절을 읽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하여 축하했고 어떤 일들을 했다. 질문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응들을 들어보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반응을 격려하라.

6. 다음과 같이 말하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흥 집회를 꼭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p>[제 11 과]</p>	<p>하나님께 감사</p>
<p>핵심본문 느헤미야 12:27-43</p> <p>배경 느헤미야 12</p>	<p>학습주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p> <p>탐구질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가장 최근의 일이 언제인가? 너무 오래 되지 않았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할 특별한 복을 생각하고 깨닫는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지난 다섯개의 과에서 우리는 엄청난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행적과 유다 백성들의 행적을 따라갔다. 그 과업은 완수하기까지 52일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많은 노동력과 희생들이 따랐다.

오늘의 수업은 성벽 봉헌식에 있었던 기쁨의 기념 축제를 여행한다. 우리는 느헤미야 6장에서 묘사되었던 성벽의 완성에 대한 기사 이후 바로 봉헌식을 예상했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느헤미야 기자는 느헤미야 봉헌예배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 봉헌식이 있는 내용 앞에 7-11장을 놓았다. 이 장들은 그 봉헌예배가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느헤미야 7 장은 예루살렘이 크고 넓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거주민은 얼마 있지 않았다 (느 7:4). 느헤미야는 가계별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느 7:5-73a).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을 발견한 후 그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모여살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법으로 그는 자신들의 조상을 포로 유랑기 이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가족의 가장들을 구분했다. 느헤미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참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그 목록은 에스라 2 장에서 발견되는 목록과 비슷한데, 유다 전역에 퍼져 있는 마을들과 도시들로부터 온 42,360 명의 사람들이었다.

에스라에 의해서 행해진 대부흥의 기사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여살게 했던 설명으로 잠시 중단된다 (느 7:73b-10:39). 이 부분의 요점은 성벽의 재건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백성들이 재헌신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 성벽 재건이 완공되자 느헤미야 11 장은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할 필요를 설명하고 있다 (11:1-24).

아마도 느헤미야 자신을 포함한 예루살렘에 살았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주사위를 던지게 해서 십분의 일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게 하고, 나머지 십분의 구는 각자 자유롭게 자기의 성읍에 살게 하였다 (11:1).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겠다고 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 노동자들을 보내주었던 마을을 대표하는 그 새로운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 옆에 그들의 거주지를 잡았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자체적으로 방어하기에 충분한 인구 밀도가 되었다. 유다의 모든 곳으로부터 온 대표들은 이제 거룩한 도시에, 아마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도시에 거주했다.

본문해석

봉헌식을 준비하다 (12:27-30)

말할 것도 없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을 위한 장엄한 예식을 준비했다. 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이 결론을 가리킨다 (12:31). 그 행사는 느헤미야의 길고도 특별한 사역에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예식은 느헤미야가 아닌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는 것이었다. 진실로 그 예식은 그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다.

12:27-29. 그 준비는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이다. 음악은 이러한 예식을 치를 때 특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 구절들은 예식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일을 했던 레위인들을 소집하는데 집중한다. 레위인들은 오랫동안 음악과 노래를 부르는 것과 관련된 일에 종사해왔다 (12:36 절에서 다윗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음악 연주자들에 대한 설명을 주목하라). 스스로 음악가였던 다윗은 레위인들을 언약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일을 하게 했다 (대상 15:16-24). 그들의 목적은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기쁨의 소리들을 크게 내게하는” 것이었고 (대상 15:16)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일이었다 (대상 16:4). 아삽, 히만, 그리고 에단은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 지도자들로 자주 언급되는 사람들이다 (대상 16:19).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영구적으로 일하게 되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음악 연주하는 자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 성전 헌물을 관리 하는 자들, 재판관,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자들로 고용했다 (대상 23:3-6; 25:1-26:28). 레위인들은 다른 역할도 감당했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어떤 종류의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고 (대상 23:24-32) 백성들에게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다 (대하 17:7-9).

포로 유랑 시절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시종들 들었다. 에스겔은 그들의 일이 그렇게 비제사장적 책무로 제한된 것은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시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겔 44:10-14). 하지만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했고, 절기들과 성전에서 거행되는 공적인 의식들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음악을 연주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했다 (느 8:7-8; 13-14).

비록 많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11:15-19), 다른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 흩어져 살았다. 우리의 본문은 레위인들이 살았던 네 개의 마을들에 대해서 언급해준다 - 벳길갈, 게바, 아스마뿔, 그리고 느도바 (12:29). 이 마을들, 그리고 다른 마을들에서도 온 레위인들은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형제와 연합했다 (12:28).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즈를 치며, 거문고와 수금을 타며” 의식이 기쁨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일이었다 (12:27). 진정 즐거운 축제가 그 봉헌식의 주된 요소였다 (12:43 절을 보라). 음악은 찬양과 경배 속에서 마음을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

찬송과 노래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찬송가였던 시편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그러한 큰 행사 기간에 사용되었던 감사의 찬송에 대한 좋은 예는 대상 16:8-36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 불렀던 그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복, 특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레위인들은 의식을 진행할 때 많은 악기들을 사용했다. 일부 기록된 악기들을 들자면 드럼, 종, 뿔, 나팔, 플룻 (원시적 클라리넷), 탬버린, 류트, 하프, 수금, 그리고 심벌즈 등이 있다 (시 98: 150 편을 참조하라). 이 악기들이 합주되어서 멜로디가 크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본문은 특히 세 개의 악기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심벌즈, 하프, 그리고 수금. 마지막 두 개의 악기는 손으로 통겨서 연주하는 현악기였다. 여기서 “하프”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였는지는 알 수 없다. 레위인들은 쇠로 만들어진 한 쌍의 심벌즈를 사용했다. 이 세 개의 악기 모두 의식을 진행할 때 자주 사용되던 것들이다.

12:30. 정결 의식들은 그러한 거룩한 의식에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스 6:20 절을 참조하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종종 거룩한 장소에 나오기 전에 부정함, 혹은 이방인으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 봉헌 의식은 성전 뜰에서 끝나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겨지던 곳이었다 (느 12:40).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 그리고 성읍 문들과 그들이 봉헌할 성벽들을 깨끗하게 하였다. 정결의 의식은 성적인 절제; 물로 몸이나 옷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 제물을 바치는 것; 몸의 털을 깎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정함 것들- 예를 들면 시체-과 접촉된 물건들은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깨끗함에 대해 이 커다란 관심은 왜 성벽들과 성읍의 문들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봉헌 의식 (12:31-43)

12:31-38. 백성들은 봉헌식이 거행되는 날 주변에 있는 각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 -마을 지도자들과 관리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 을 성벽 꼭대기로 진두 지휘했고 감사의 찬양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큰 찬양대;” 12:31; 12:38 절을 참조하라). “찬양대 (choir)” 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감사 드림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대를 감사의 찬양대라고 부를 수 있다. 각각의 찬양대 행렬은 몇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존경 받는 지도자 - 호세야와 느헤미야 (12:32, 38); 지도자의 절반 (12:32, 38);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 아들 중의 몇 몇) (12:33-35a); 레위 지파의 악기

단원 4. 느헤미야: 일을 처리하기

든 자들 (12:36; 42); 찬양대 지휘자들 (12:35b, 42b), 그리고 대표단 앞서 진행했던 두개의 찬양대 (12:31, 38). 여기에서 유일한 예외는 서기관 에스라였는데, 그는 첫번째 행렬을 이끌었다 (12:36b).

각각의 행렬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꼭대기 위에 있는 특정한 길을 따라 행진했다. 바로 이 성벽들은 위대한 희생과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재건했던 일꾼들의 인내의 장면이었다. 이제 그때 공사에 참여했던 그 일꾼들이 그 성벽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 대표단의 위대한 의식을 목도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넘쳤겠는가!

우리는 그 두 행렬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모른다. 한 가지 가능성은 느헤미야가 처음 도착해서 성벽을 돌아보는 출발점이었던 골짜기 문이다 (2:13).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때 완전히 무너졌었던 이 성곽들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얼마나 안성 맞춤인가!

비록 그 두 행렬에 대한 정확한 경로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합당한 추측을 할 수 있다. 호세아가 이끌었던 첫번째 합창 행렬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었던 “거름 문” (12:31)을 향하여 남쪽 방향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가려면 수문 근처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했을 것이다 (12:31-37).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두번째 합창 행렬은 예루살렘 성 북동쪽 모서리에 있는 양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서쪽 측면을 따라 북쪽 (“왼쪽”)으로 행진했을 것이다 (12:38-39). 물론 다른 경로에 대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두 행렬이 그 도시 전체를 완전히 돌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2:40-43. 성전에 도착한 뒤 두 개의 찬양대, 제사장들, 그리고 절반의 관리들은 “하나님의 집” (12:40-41)에서 서로 합쳤다. 일반 백성들은 성전 정문을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은 분명히 성전 앞 뜰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 나팔 소리가 성전 뜰에서 도시 전체를 울려 퍼지게 했고 두 개의 찬양대는 에스라히야 (12:42)의 지휘 아래 찬송을 합창했다.

제사장들은 봉헌식의 한 부분으로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12:43). 이 제물들은 흠이 없는 황소, 암소, 양, 혹은 염소로 이루어진 화목제물이었다 (레위기 3장). 화목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식 속에서 종종 사용되던 제물이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화목제를 드렸었다 (왕상 8:63). 이 위대한 제물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백성들이 큰 감사를 드리는 표현이었다.

12:43.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날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느낌을 드러내준다: 희년의 기쁨. 히브리어로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구절에 다섯 번이나 나오는데, 두 번은 명사로, 세 번은 동사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쁨은 이 봉헌 의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총명한 감정이었다.

예배를 지원하다 (12:44-47)

이 구절들은 성전에서 거행되는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되어 다양하게 헌신했던 일들을 요약하고 있다. 느헤미야 기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십일조와 헌물들을 받았고 관리했다는 것을 묘사한다. 마찬가지로 기자는 문 지키는 자들과 음악을 하는 자들의 의무들을 이스라엘의 옛적 위대한 왕들의 시대를 회고하며 기록하고 있다. 느헤미야 13 장은 봉헌식 날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질문하라: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축하하고 기념하는가? 많은 경우들을 생각해보자. 반원들의 대답을 기다리라. 칠판에 각 대답들을 기록하라. (예를 들면 생일, 결혼식, 기념일, 휴일, 은퇴, 졸업식, 동창회, 베이비 샤워, 결혼식 샤워, 슈퍼 보울, 스포츠에서 승리한 팀 등). 질문하라: 당신이 마지막 참석한 축하일, 혹은 기념식은 무엇이었는가? 그때 당신이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반원들이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2. 다음과 같이 말하라: 느헤미야에 대한 오늘의 마지막 공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하의 날에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 완공을 기뻐했던 장면을 보여준다. 느헤미야 12:27-43 절을 펴라.

학습인도

3. 다음과 같이 말하라: 느헤미야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가보자.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이었는데? (성벽은 대부분이 무너져 있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고 없었다). 질문하라, 그 당시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그는 슬픔과 염려 속에서 울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슬픈 상황이었다).

4. 다음과 같이 말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공사를 완수했다. 52 일 만에 성벽들은 재건되었고, 성문들은 새롭게 세워졌다. 기뻐하고 축하할 날이었다. 반원 중 한 사람이 느헤미야 12:27-30 절을 읽게 하라. 질문하라: 우리 교회에서 축하하는 날들은 언제인가? 반원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질문하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축하할 수 있는가? 반원들의 대답을 들어보라.

5. 반원들이 느헤미야 12:31-39 절을 소리내지 않고 읽게하라. 질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반원들 중에 한 명이 이 구절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약할 수 있도록 하라. 학습공과와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사용해서 그 인상적인 축하 의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라. 그들은 창조적으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축하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하라.

6. 반원 중 한 사람이 12:40-43 절을 소리내서 읽게하라. 반원들 가운데 2008 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혹은 폐막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았는지 손을 들어보게 하라. 질문하라: 텔레비전에서 그 이벤트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가? 반응을 들어보라. 질문하라: 만일 당신이 거기에 살았다면, 혹은 거기에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반원들의 대답을 기다리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룬 모든 건축 공사와 네트워크, 그리고 베이징에서의 성공적인 올림픽을 축하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장면은 거대한 축하 의식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크게 기뻐하는 의식이었다.

적용격려

단원 4. 느헤미야: 일을 처리하기

7. 학습공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질문들을 참조하라. 반원들이 그들과 가장 관련 있는 질문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반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라.

8. 반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감사 나누며, 대표로 한 명이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써 수업을 마치도록 하라.

<p>[제 12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p>
<p>핵심본문: 말라기 1:6-14; 2:4-9</p> <p>배경: 말라기 1:1-2:9</p>	<p>학습주제: 겉모습만 형식적이고, 진실한 헌신이 없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p> <p>탐구질문: 우리의 종교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p> <p>교육목표: 우리의 형식적이고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잘못된 신앙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같은 행동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말라기는 하나님의 독특한 대변이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대변인”이라는 뜻이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의 배경이나 직업,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가 유대민족에게 전했던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 날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가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죄악에 대한 아주 예리한 안목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다.

그의 선배 선지자였던 학개와 스가랴처럼, 말라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전했던 말씀은 그의 선배 선지자들과는 약간 다른 주제였다. 그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는 유대민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었던 제사법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말라기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 성전은 재건축이 되었고,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성전의 재건축은 이미 BC 515년에 완공이 되었었다. 그래서 말라기의 사역시점은 BC 515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말라기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내용들은 이미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서 비슷하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말라기의 사역기간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사역했던 시점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의 사역기간을 결정하는 문제는 보다 깊은 내용과 정보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성서해석자는 말라기의 사역기간을 성전의 재건축에서부터 BC 5세기중반까지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보통 BC 515에서 BC 450까지로 보고 있다. 다른 학자들은 말라기의 사역기간을 BC 450에서 400으로 보는 자들도 있다. 이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기간 동안 유대민족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많이 느슨해졌던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라기가 전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와 사역기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라기의 예언적 말씀의 내용에는 전혀 애매하거나 헛갈리는 부분이 없다. 그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정확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함에 대하여 무시하고,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들의 시간과 헌신과 물질들을 아까워하면서 줄이기 시작했고,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다. 말라기는 그런 그들의 불성실한 예배태도를 보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말라기의 설교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되어있다. 보통 선지자들은 oracles 라고 부르는 짧은 글들을 모은 형태의 설교를 한다. 스가랴는 바로 이런 형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중에 보여주신 환상을 설명하셨다. 하지만 말라기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들을 나열해서 문답식으로 죄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졌다. 백성들에게 죄들에 대하여 따지면서,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마지막에는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말하는 식으로 설교했다. 질문과 질책으로 그들의 죄악을 따졌다. 말라기 전체를 통해 6 군데에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고 질책한다 (말라기 1:1-5; 1:6-2:9; 2:10-16; 2:17-3:5; 3:6-12, 그리고 3:13-4:6). 위의 6 구절들에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예언적 진리들을 질문하고 대답하며, 설명을 통해 선포한다.

첫 번째 문답식 대화 (1:2-5)

말라기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약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말라기 1:2a)” 이런 믿음의 의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라기의 입을 통해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진다. “내가 에서의 자손들(에돔)보다 야곱의 자손(이스라엘)인 너희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자세히 돌아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리라. 내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 편에서 너희를 도왔던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라기의 설교의 핵심은 에서의 자손, 에돔족속의 어려운 역사와 야곱의 자손, 하나님께 선택 받은 이스라엘의 축복된 역사를 서로 비교하는데 있다.

하나님의 멸시하는 타락한 성직자들 (1:6-14)

1:6.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보답으로 마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리고 충성된 종이 그의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그 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 분을 사랑하지 않았다. 특별히 말라기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사장들이 오히려 “주의 이름을 멸시” 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겼다.

하지만 이런 말라기의 지적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1:6b).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데, 백성들이 그들보다 나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1:7-8. 예루살렘에 새롭게 재건된 성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제단” 혹은 “상” (1:7,12)이 있다 (레위기서를 참조). 사람들은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제물로 받치는 동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최고의 것들만을 가지고 온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동물로 제물을 바친다.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이 가지고 온 동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받쳐질 수 있도록 제사의 진행을 도와준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제사는 타락했고 부패했다. 사람들은 “눈먼 것,” “절뚝거리는 것,” “병든 것” (1:8)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조차 선물로 줄 수 없는 나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받치고 있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인가!

1:9-10. 말라기는 분명하게 말하길, 이런 제물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선포했다. 이런 제물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고, 번제물을 태우는 제단의 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것이 나을지 몰랐다. 차라리 아무 것도 받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 몰랐다. (호세아 6:6; 이사야 1:10-17; 미가 6:6-8 을 참조.)

1:11-14. 구약에서 “모든 민족” 이라고 말할 때에는 보통 이방국가들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거나, 야곱의 자손이 아닌 국가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것이다. 말라기는 아주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주장했다. “내 이름이 이방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1:11). 그리고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1:14).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과 헌신과 물질들을 아까워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배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으며, 제사를 위한 가지고 온 동물들은 이미 죽은 짐승 (요즘 표현에 의하면 길가에 차에 치어 죽은 동물), 혹은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 들어있다 (1:13). 이런 행동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가장 사악한 행위는 자기가 소유한 동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실제로는 가장 안 좋은 동물을 가지고 오는 거짓말이었다 (1:14). 이는 한마디로 사기였다.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동안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1:14).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배와 제사를 더 신실하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는 당혹하고, 창피해 했다.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2:1-3)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내리신 똑같은 심판을 제사장들에게도 내리셨다.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이런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2:2).

그래서 제사장들의 실패와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다. 슬프게도, 유대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은 오히려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과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제사장직분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겠다고 하신다 (2:3). 그리고 그들이 바친 하찮은 짐승의 배설물을 그들의 얼굴에 뿌리겠다고 하신다. 그들의 그런 성의 없고 불순한 모습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타락하게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인도자로 설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2:3).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레위지파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2:4-9)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만을 담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민수기 18 장).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지파의 역할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제사장직분을 맡기신다는 약속은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죄악들이었기에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말라기 2:5-9 절을 읽고 옛날의 신실하고 성실했던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최근의 타락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비교해보자.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습공과에 있는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에 기록된 사건들의 연대기표”를 참조한다. 특별히 말라기에 대한 설명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에서 말라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참조한다.
2. 한 명을 지목해서 학습공과의 개요를 읽도록 한다. 그리고 말라기에 소개되는 6가지 “문답식 대화” 목록을 소개하고, 빈칸을 다 같이 채워보자.

말라기 1:2	“당신이 우리를 ____하셨는가?” (사랑)
말라기 1:6	“우리가 언제 당신의 이름을 ____하였습니까?” (열시)
말라기 2:10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____되게 하는가?” (욕)
말라기 2:17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____?” (괴롭혔는가?)
말라기 3:7	“우리가 어떻게 당신께 ____?” (돌아가겠는가?)
말라기 3:13	“우리가 언제 주님을 ____하였는가?” (거역)

학습인도

3. 한 명을 지목해서 말라기 1:6-9 절을 읽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지 찾아보자. 학습공과의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를 원하신다”와 “제사장들의 축복”이라는 작은 글을 참조한다.
그리고 학습공과의 마지막에 있는 2개의 질문을 한다.
“오늘날,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4. 한 명을 지목해서 말라기 1:10-14 절을 읽고, 다른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학습공과에 “무성의한 예배의 결과”를 참조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결과들에 적어본다.

이어서 학습공과의 질문 #3 번을 함께 나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예배를 드리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5. 한 명을 지목해서 말라기 2:1-2을 읽도록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질에 대하여 살펴보자. 질문: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에 왜 예배 인도자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학습공과의 질문 #5를 함께 나눈다. “오늘 날, 제사장은 누구인가?” 그리고 한 명을 지목해서 베드로전서 2:4-5 절과 9 절을 읽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한다. “현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적용격려

6. 이번과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칠판에 다음의 문장을 쓴다. “올바른 예배를 위한 4 A”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하면서 A로 시작되는 핵심 단어들을 차례로 쓴다.

- Actions (행동):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어떤 행동들을 반대하시는가?
- Attitude (마음가짐): 그들의 행동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했는가?
- Accountability (책임): 왜 예배 인도자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Acceptance (받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7. 잠시 묵상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에 생각해본다. 기도로 성경공부를 마친다.

<p>[제 13 과]</p>	<p>하나님께서서는 정말 심판하실까?</p>
<p>핵심본문: 말라기 2:17 - 3:5</p> <p>배경: 말라기 2:10 - 3:5</p>	<p>학습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고 단언하신다.</p> <p>탐구질문: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인가?</p> <p>교육목표: 왜 심판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며, 그를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부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포로귀환 이후에, 선지자 말라기는 유대사회 전체에 퍼져있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들은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택 받은 백성이기에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했었다. 유대인들의 비관적이고 안이한 종교적인 모습은 결국 새롭게 재건축 되었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쳤다. 예루살렘은 이미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와 성의 없는 제사들로 오염되어 있었다 (제 12 과를 참조).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부족한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심각한 신앙생활의 실패는 결국 유대민족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심각한 부패와 오염의 시작은 바로 형식적인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라기는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그들의 잘못된 예배의식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곳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신성한 예배에 다른 이교도의 종교행위와 의식들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여호수아가 12 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종교행위를 받아 들일 수 있는가?

말라기는 또한 유대남자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문제에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만약 유대남자가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여자가 믿는 이방신앙이 그 집안에 들어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남편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도 똑같이 언급되었다. 에스라 9:1-4 절에 의하면 이방여인과의 결혼문제가 선지자 에스라에게 알려졌으며, 그 이방여인들이 속한 족속들의 이름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백성을 대신해서 애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죄를 회개했다. 솔로몬 왕도 이방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면서 이 문제로 실패했다 (왕상 11:1-8).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경고했다 (느헤미야 13:23-27).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방인들과의 결혼문제를 심각하게 언급했던 것으로 봐서 이들은 말라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말라기가 언급했던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본처와 이혼하고 다른 이방인 여인들과 재혼을 하는 문제였다. 그 당시,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다른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언급하면서 아주 나쁜 죄라고 지적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만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게으른 신앙생활은 결국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만하며 이기적인 관계를 맺게 하였다. 레위기의 주제처럼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바르고

참되게 살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 말라기는 이런 잘못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포했다.

세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 수 없는가? (2:10-16)

말라기는 세 번째 문답식 질문을 던지면서 깨끗한 믿음과 영원한 결혼의 언약이라는 2 가지 주제들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깨끗한 예배와 영원한 결혼서약이라는 2 가지 주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0-12. 말라기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우리 식으로 질문을 조금 바꿔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 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사실을 모르겠느냐? 만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족이라면, 왜 서로 전혀 모르는 남처럼 대하고 결혼의 언약과 가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냐? (2:10)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후손들이다. 그런 선조 대대로 내려온 신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신 언약에서 시작되었다. 그 믿음의 집안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Torah 를 받으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제, 그 믿음의 자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물려받은 후손들에게 말라기는 질문한다. 왜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서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우리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가 (2:10b)?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였는가” (2:11b)?

특히 우리는 말라기가 전하는 내용 중에 “이방 여인”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된다. 포로귀한 이후의 세대들에게 세워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금지는 단순히 그들이 다른 민족의 여인이거나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절대로 유대집안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는 뜻은 결코 인종차별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종교 때문이다. 이런 이방종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출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방종교는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핵심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유대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2:11).

말라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계속해서 이방 우상들을 유대땅에 들여오는 나쁜 풍습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경고한다. 이 구절에서 말라기는 앞으로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경고한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방 우상들과 타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2:12). 그래서 다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저버린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다.

2:13-16. 말라기가 다루던 2 번째 주제는 바로 유대민족의 영원한 결혼언약에 대한 것이다. 말라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그의 메시지를 시작한다. 너희가 또 하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와 종교의식을 축복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있다 (2:13).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냐? (2:14a) 이는 아주 가슴 아픈 질문이었다. 말라기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말라기의 해답은 바로 이것이다. 유대의 남자들은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결혼서약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젊은 날에 만난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가정을 버리고 있었다 (2:14b). 그들은 다른 이방여인들과 결혼하려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여자들과의 결혼서약을 깨트리고 그 의미를 더럽혔다.

하나님은 이런 남자들이 이혼을 하지 말고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2 가지 이유를 말씀하신다. 첫째는 그들이 자신들의 유대인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며 (2:14b), 두 번째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경건한 자손” (2:15)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써 이 유대남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자녀들을 낳고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시다. “나 외에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10:3,14).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 가정과 내 아내에게 충성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결혼생활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이 서로 진실하게 연합하고, 자손대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성실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시고, 결혼생활이 불의하게 끝나지 않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의 실패는 하나님과 그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말라기 2:16). 비록 구약에서 특별한 경우에 이혼증서 (신명기 24:1-4)를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깨지지 않는 영원한 결혼생활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렇게 그들에게 허락된 결혼과 가정에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네번째 질문: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2:17-3:5)

2:17. 네 번째로 백성들과 나눈 문답식 질문에서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그들의 의심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다. 이런 그들의 의심은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 말라기 시대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다.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쁜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주시는 분이시라고 불평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작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이 거꾸로 되었고, 오히려 나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3:1-2a. 이에 대한 말라기의 대답은 그들의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셔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사”를 먼저 보내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그의 성전을 곧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나의 특사”라는 것은 왕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왕의 길을 예비하는 안내자와 같은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침례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왕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이유는 아무도 왕의 도착을 보지 않고 도망치거나, 혹은 그가 오심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3:2). 하나님께서 도착하시면, 나쁘고 악한 것들은 모두 사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신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는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와 의 날”이라고 표현한다. 이 날은 인류의 마지막을 뜻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에 임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 심판 후에 메시아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된다 (아모스 5:18-20; 스가랴 1-3 장).

3:2b-4.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날은 모든 악한 것과 실패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날이다. 아주 독한 비누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이다. “정결의 불” 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오직 깨끗한 금과 은과 같은 정결한 것만 남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로 성직자들과 모든 “레위지파의 자손들” (3:3)을 먼저 깨끗하게 하셔서 유대민족들이 다시 한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 (3:4).

3:5.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도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모든 종류의 사악한 것들(백성들에게 사악한 종교를 전파하는 자들부터 간음하고, 거짓증언하고, 도적질하는 자들까지)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한 사회의 가장 악한 자들, 노약자,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중하고 조심해서 살펴보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한 명을 지목해서 학습공과의 탐구질문을 읽도록 한다. 오늘 학습의 목표는 나와 우리교회, 그리고 내 나라가 불의와 불공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2. 칠판에 펜으로 저울을 그린다. 그 저울 위에 “하나님의 성품” 이라고 쓴다.
 - 저울의 왼쪽에 “사랑” 이라고 쓴 후에 질문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행을 이루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저울의 오른쪽에는 “공의” 라고 쓴다.)

-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에 “성실”이라고 쓴 후에 질문한다. 하나님의 성실과 평행을 이루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저울의 오른쪽에 “책임”이라고 쓴다.)
- “성실”이라는 단어 아래에 “축복”이라고 쓴 후에 질문한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행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저울의 오른쪽에 “심판”이라고 쓴다.)
- 하나님의 사랑, 성실, 축복은 오직 그의 공의와 균형을 이루며, 만약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학습인도

3. 말라기 2:10-16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것인지 나눈다.

- 믿지 않는 이방여인과의 결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2:11)
-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책임감 없는 행동 (2:14)
- 이혼과 가정폭력 (2:16)

한 명을 지목해서 말라기 2:17 절을 읽고, 이런 불성실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나누어 보자. 학습공과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를 참조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축복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나누어보자.

4. 한 명을 지목해서 말라기 3:1 절을 읽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알아보자. 학습공과의 “심판의 날”을 참조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하여 나누어보고, 오늘 날에는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어보자. 그리고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한 노래를 소개한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심판의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 명을 지목해서 2-3 절을 읽도록 하고 그 동안 인도자는 칠판에 다음의 2 단어를 쓴다. “정결의 불”과 “빨래비누”

질문: 위의 2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학습공과의 3 번째 질문을 한다.

질문: 하나님의 심판이 “연단하는 불” 또는 “표백하는 잿물” (3:2)이라고 묘사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을까?

한 명을 지목해서 4 절을 읽고 질문한다.

질문: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정결과 회복)

5. 학습공과의 “하나님의 날”의 내용을 요약한다.

질문: 현대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이나 죄를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신다고 믿는가? 서로 나누어보자.

6.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 말라기 3:5 절에서 찾아보자.

질문: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과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서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인가? (자비로운 도움의 손길) 한 명을 지목해서 마태복음 25:31-46 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심판의 모습에 대하여 나누어보자.

적용격려

7. 다음의 이야기로 성경공부를 마무리한다.

프랭크는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나누어준다. 그와 그의 봉사자들은 일주일에 7일을 Austin의 한 교회에서 300명의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한다. 지난 25년간의 봉사를 통해 프랭크는 건물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고, 이 건물에서 그는 성경공부와 무료이발 등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력서작성과 목욕, 깨끗한 옷과 인터뷰 방법까지 도와주는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을 통해 몇 백 명의 노숙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침례교회들이 이 사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자! 이 기도와 함께 성경공부를 마친다.

<p>[제 14 과]</p>	<p>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가?</p>
<p>핵심본문: 말라기 3:6 - 12</p> <p>배경: 말라기 3:6 - 4:6</p>	<p>학습주제: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치 않은 행동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당신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가?</p> <p>교육목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나 기쁜 맘으로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본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 책에 기록된 마지막 설교에서 말라기는 유대민족이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2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 2 개의 문답식 대화들은 이 책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4 개의 문답식 대화들을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BC 516 년에 드디어 모든 성전이 완성이 되었지만, 그 후 몇 년은 유대민족에게 아주 힘든 시기였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였고, 재건축이 끝난 후에도 몇 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이런 힘든 시기는 특별히 가뭄과 흉년, 그리고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농작물을 많이 추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심각했다.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 나라에 닥치게 되면 보통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쌓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이였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영적인 삶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을 잊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과거에 용납할 수 없었던 행동들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포로시대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거만해졌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더욱 지치고 낙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포로생활에서 귀환을 하자마자 그들은 부담스러운 성전재건축을 완성했다. 그런 후에도, 계속된 기근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다.

더욱이 그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었다. 이웃국가들의 공격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긴 안전에 대한 불안이였다. 이런 문제점은 좀처럼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공격을 한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후퇴하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려고 한다 (그런 공격이 아주 약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이런 총체적 난관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의지와 노력은 없어지게 된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 그걸 다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깐 그가 원하는 것을 다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축복은 계속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과 협상을 좀 해야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 하나님도 이해 하실 거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셔야 해.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테니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사실 과거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섬겼는데도 별로 나아진 삶을 살지 못했잖아! 그러니깐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는 좀 봐주시겠지!

다섯 번째 문답식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3:6-12)

3:6-7.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의 더럽혀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서 헤매는구나. 너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망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언약의 관계를 망쳤다는 사실이다. 너희가 불성실하게 행동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번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으셨고 항상 성실하게 지키셨다.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그들을 기다리셨다 (말라기 3:6).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과의 언약을 회복해라. 하나님은 너희와 잃어버린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다 (말라기 3:7).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열린 마음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은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좀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말라기는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의 상태를 설명했다. 이 말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무엇을 훔쳤는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3:8-10.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그들은 질문했다. 선지자는 이미 그에 대한 답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성의 없는 예배, 그리고 합당치 않는 제물(제 12 과를 참조)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은 결정적인 잘못이었다. 말라기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시기에 대한 과거 역사를 다시 설명하면서 너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가(하나님의 심판)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3:9). 그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뒤로 숨기고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로 흉년이 들고 곡식을 추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딱 한가지만 바꾼다면 다시는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말라기 설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소개한다. 말라기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정직하고 성실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전한 십일조”).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축복을 통해 비도 허락하시고, 풍성한 추수와 곡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다 (3:10).

3:11-12.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유대백성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농작물을 먹는 벌레들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3:11). 주위 국가들은 유대민족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3:12).

말라기의 이 설교는 구약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신명기의 신학적 가르침의 아주 좋은 예가 된다. 신명기 28 장에 보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우리의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신명기 28 장에 담겨있는 이런 신학적 해석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재해석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많은 좋은 것들로 축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불순종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된다.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Torah”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후손들에게까지 순종이란 요소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리트모스 종이와 같았다.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가? 혹은 불순종을 했는가? 에 따라서 좋은 왕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항상 진실은 아니다. 오히려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한다.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이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바울도 이 가르침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다 쉽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7-9). 또한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 회개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물질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린도후서 8-9 장을 참조.)

여섯 번째 문답식 질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가? (3:13-4:6)

3:13-15. 낙심된 사람들은 다시 선지자에게 따진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득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받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득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라기는 사람들의 이런 도전적인 질문에 왜 그들이 아무런 축복과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경험한 불공평에 대하여 호소했다. 그들이 말라기에게 털어놓은 불만들은 시편 37 편과 73 편과 유사한 불만들이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살지 않는가? 이 세상을 보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항상 고생하고 고통을 받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잘못을 심판 받지도 않고, 항상 복을 누리며 잘 사는구나. 인생은 불공평하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오히려 악인이 축복을 누리는구나.

3:16-4:4. 말라기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격려였다. 너무 단기적인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격려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누가 충성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의인의 족보는 항상 하나님의 “비망록”에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3:16).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잘 아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속한 자임을 증명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상주시는 분이 되신다 (3:17).

하나님은 누가 충성된 자인지 다 아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를 “성기는” 자들과 그를 “성기지 않은 자”를 가려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3:18). 그래서 말라기는 그들에게 도전하기를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한다 (4:4). 그 율법의 말씀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 진실이기 때문이다.

4:5-6.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라기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끝마친다. 이 세대가 끝날 때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실 것이다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 날을 위해 사람들에게 회개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회복을 외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 많은 “특사”들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실 것이다 (3:1 절 참조).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습공과의 개요에 소개된 George 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공부를 시작한다. 3 번째 문단에서 잠시 멈추고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질문: 당신은 조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몇 명의 대답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마친다.

질문: 조지의 손자가 그에게 하려는 말은 무엇이었는가? 당신은 그 말에 동의하는가?

학습공과의 Quick Read 를 읽는다. 질문: 왜 이것이 조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가? 에베소서 2:8-9 절을 참고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해보자.

학습인도

2. 한 명을 지목해서 말라기 3:6-7 절을 읽도록 한다. 학습공과의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3 가지 죄들에 대해서 나누어보자. 한 명을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죄들을 쉽게 현대말로 풀어서 설명하게 한다.

3. 학습공과의 질문 1 을 물어본다.

“하나님의 다양하고 변화무상한 성품에 대하여 말하는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학습공과의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글을 참조한다.

4. 한 명을 지목해서 말라기 3:8-9 절을 읽도록 한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다음의 질문들을 답한다. (질문의 대답들을 칠판에 적어본다. 학습공과의 “하나님에게서 약탈하기” 라는 글을 참조한다.)

- 왜 말라기는 십일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하는가? (말라기 1:7-9 절을 통해 그들의 불성실한 헌금에 대하여 설명한다.)
- 언제 십일조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언급되었나?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생각한다.)
- 십일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명기 14:22-27; 26:12 을 참조)
- 신약성경에서 십일조의 좋은 모범은 어디에 있나? (고린도후서 8:1-5 절)

5. 한 명을 지목해서 말라기 3:10-12 절을 읽는다.

질문: 십일조를 성실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6. 말라기 3:13-18 절을 함께 보면서 말라기의 경고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마치셨는지 살펴본다.

-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의 말씀을 거부했다. (말라기 3:13-15)
- 하지만 조금 후, 몇 명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했다. (3:16a)
-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 들이시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의 두루마리” 에 적으셨다 (3:16b - 18)

적용 격려

7. 학습공과의 질문 2를 물어본다.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모두 조용히 마음 속으로 이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8. 학습공과의 “시험과 약속” 과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에 나타난 사건들의 연대기표” 를 참고해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한다.

- 에스라의 시대의 “새로운 시작” 은 무엇이었나?
- 느헤미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이었나?

- 학개와 스가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했는가?
- 왜 하나님은 말라기를 보내서 많은 질문들을 했는가?

9. 질문: “미래를 회복하기” 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신다. 새로운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만약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을 잃을 수도 있다.)

각자 연필이나 펜으로 성경의 말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조그마한 빈 공간에 말라기서에서 배운 진리를 딱 한가지만 적도록 한다.)

[부활절]	주님을 보라!
<p>핵심본문: 요한복음 20:1-18</p> <p>배경: 요한복음 20:1-18</p>	<p>학습주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p> <p>교육목표: 각자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온 예수님의 부활사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서로 나누어보자.</p>

성경주해

배경이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며 또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된다. 사복음서 모두 빈 무덤과 우리 주의 다시 살아나심을 언급하면서 예수님부활을 설명하면서 끝난다. 초기 기독교인의 설교는 정확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린도 전서 15:3~5). 왜냐면 두 사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성금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바울이 썼듯이 하나님께서는 모태적부터 우리의 원수가 되었던 죄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고린도 전서 15:12~19, 55~57).

하지만 우리는 처음 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결코 빈 무덤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그들의 삶에 혼돈과 절망을 가져왔었다.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부활을 설명하는 각 복음서에서는 일요일 아침 일찍 무덤에 왔던 여인들의 무리를 기록하고 있다 (마태 28:11; 마가 16:1; 누가 24:10; 요한 20:1).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의 임무는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마가 16:1).

요한은 부활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여성들 중 한명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렸던 두 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학과에서 우리는 부활 사건이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약속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혼란스러운 발견 (20:1-2)

20:1. 사복음서 모두 부활이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다. 마가는 해가 뜬 때라고 기록하는 반면,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다 (마가 16:2; 요한 20:1). 이 두 진술은 무덤에 도착한 첫 방문자들이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이른 아침시간에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뜻하고 있다. 요한은 종종 죄와 무지에 대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적인 용어를 쓰곤 했다(요한 1:4-5; 3:2, 19-21; 8:12; 13:30). 요한의 이러한 “어둠”이라는 용어로 어둠 속에서 무덤으로 가던 그들이 곧 금요일의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절의 아침의 빛이 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의 부활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리아는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갈릴리 호수 서쪽의 여촌인 막달라 출신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귀신들림을 치유하셨을 때 처음 등장한다 (누가 8:2).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성들 중 한 명이었다(누가 8:3).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지켜보았으며 (마태 27:55-56; 요한 19:25),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것도 보았다 (마태 27:57-61).

마리아는 무덤에 도착해서 불길하고 혼란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이 치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 시기의 가족무덤은 바위를 깎거나 이미 존재하는 동굴을 이용하였다. 그 무덤 안에는 시체들이 안치될 수 있게 석판이 있었다. 시체가 다 부패되고 난 뒤 가족들은 그 뼈를 모아 마지막 안치소인 돌로 만들어진 납골당에 두었다. 무덤의 입구를 막는 둥근 형태나 네모난 형태의 돌은 시체를 보호하고, 안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입구 돌이 이동되었다는 사실은 시체가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리아는 심히 불안해했었다.

20:2. 마리아는 뭔가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그녀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알렸다. 그녀는 오직 시체가 어디 갔을까 만을 생각하였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A.D. 41-45) 시대에는 나사렛 근처에서 무덤을 훼손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고대에는 도굴이 상당한 사회의 문젯거리였기 때문이다. 유대당국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말하라고 몇몇 사람에게 뇌물을 주었다(마태 28:11-15).

마리아가 두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다. 이름이 나온 첫 번째 제자인 시몬 베드로는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에 그 행방이 묘연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했다 (요한 18:13-27).

학자들은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번째 제자, “예수님이 사랑했던” 또는 “사랑 받았던 제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한 논쟁을 오랫동안 해 오고 있다. 요한복음은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 제자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하고 있다 (요한 13:23-26; 19:25-27; 20:1-10; 21:1-14, 20-24). 이러한 구절들은 그가 마지막 만찬에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다), 빈 무덤에 온 첫 방문자들 중의 한 명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 중에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랑 받았던 제자”는 베드로와 같이 등장하면서 베드로와 대조되는 행동을 보여준다(20:4-8). 하지만 그는 누구였을까?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사도 요한을 사랑 받았던 제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랑 받았던 제자라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라는 문구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어떤 이들은 나사로, 마가 요한, 장로요한으로 언급된 다른 요한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름과 상관없이 이 제자는 예수님께 깊이 헌신하였고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음에 틀림없다.

무덤으로 달려가다 (20:3-10)

20:3-5.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다혈질답게 즉시 무덤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사랑 받는 제자”는 베드로를 추월하여 무덤에 먼저 도착해서, 몸을 굽혀 무덤 쪽을 주의해서 보았다. 그는 그 안에 곱게 접혀있던 세마포를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다. 대부분의 무덤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구부려야 하는 낮은 입구로 되어 있다. 우리는 왜 “사랑 받은 제자”가 그 순간 주저했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세마포가 남겨져 있었다는 것은 시체가 도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도둑들은 시체의 천을 풀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먼저 달리기 경주에 이겨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냐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굳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이 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은 할 수 있다.

“사랑 받았던 제자” 베드로 보다 더 젊은 제자였나? 그래서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는가? 그가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에 더 빨리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경주에 뭔가 더 깊은 의미나 어떤 상징이 들어있는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딱 한가지 확실한 것은, 유대인 법에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적어도 두 명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민수기 35:30; 신명기 17:6; 19:15).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가 말했던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20:6-7. 반면에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더 자세히 접혀있던 세마포 천을 보았다. 이 시대에 유대인의 시체에 입히는 복장은 다양했다. 어떤 경우에는 몸을 감싸기에 충분한 크기의 리넨(세마포)천이 사용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리넨(세마포)봉대로 감쌌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비싼 향료(알로에를 섞은 몰약)를 사용하였다 (요한 19:38-41).

베드로는 돌 위에 얼굴이나 머리를 가렸던 천과 몸을 감싸는데 썼던 세마포를 보았다. 나사로의 몸에 감겼던 것과 비슷했다(11:44). 요한은 얼굴천이 접혀 있었고 감싸는 세마포로부터 떨어져 있었다고 조심스레 진술하고 있다. 어떠한 무덤 도둑도 그렇게 잘 접어서 놓고 가지 않으며, 더군다나 비싼 향료를 두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덤 안은 확실히 특이하고도 얘기치 않은 뭔가가 있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20:8. 베드로의 반응과는 반대로 다른 제자는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보았고”, “믿었다”. 이 구절은 “사랑 받았던 제자”가 그 앞에 펼쳐진 상황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요한의 부활절 아침에 대한 설명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요한 복음에서 “믿었다”라는 표현은 진정한 신앙을 의미한다(3:16-18; 6:47; 19:35). 빈 무덤과 세마포 천은 이 제자를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믿음(신앙)으로 이끌어 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이 “사랑 받던 제자”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기도 전에 빈 무덤만 보고는 믿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나중에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을 원하셨다 (20:2). “사랑 받던 제자”의 신앙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었어도, 믿게 되는 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이 된다.

20:9-10. 성경에서 그 두 제자가 사건의 증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작가는 그 때에는 그들이 부활의 함축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었다고 기록했다. 다른 구절에서는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성경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한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한번은 무리 속에서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설명했다(누가 24: 25-27, 44-46). 그 두 구절 모두 구체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 (누가 24:44)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한 부활과 하나님의 속죄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은 갑자기 그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설명하며 마친다.

20:11-13. 갑자기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장면으로 넘어간다. 그녀의 슬픔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확신에 더욱 심해졌다. 예의 바른 장례의식은 유대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무였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잘 보존되지 못했다는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구절에 “울다”라는 표현이 세 번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기쁨 전에 슬픔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나게 한다(요한 16:20).

마리아는 처음으로 무덤 입구에 서서 무덤 안을 보았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머리와 발 쪽에 앉아 있는 두 천사를 보게 되었다. 천사들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빈 무덤을 설명할 때 나오며 이것은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곳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권능은 분명하였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랑 받았던 제자와는 다르게 그녀가 본 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다. 울고 있는 그녀에게 천사들이 바로 물어보자,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20:14-16. 14 절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볼 수 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느꼈고, 뒤로 돌아보자 거기서 자신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슬픔과 눈물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아마 그녀의 눈물 때문에 눈이 흐려져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아마 그의 형상을 구별하기에 충분한 빛이 없었을 수도 있다. 또는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을 보았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일 수도 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왜 울고 있느냐”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은 천사가 한 질문이지만,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침례 요한의 제자에게 말했던 첫 마디를 연상시킨다(요한 1:38). 이 질문은 마리아에게 빈 무덤에 대한 진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녀는 그러지 못하였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을 때 질문한 내용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즉, 마리아는 관리인이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거라 생각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자신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여쭙었던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 앞에서 있는 그 무덤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모든 것이 밝혀졌다. 마리아는 자신의 앞에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리며 (20:17-18 내용을 보라), 깊은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랍오니” 또는 “선생님” 하고 외쳤다(13:13-14 을 보라).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그의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도 그의 목소리를 아는 “좋은 목자”의 비유를 완벽하게 재연해주는 순간이다(10:3-4).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리아의 눈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다(16:20-23).

20:17-18.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음 요구한 것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이었다. 신학자들 중에는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도 약간의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20:27), 분명히 마리아는 이전에 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을 만졌었다(마태 28:9).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이 요구는 그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마리아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승천은 예수님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승천 후에는 그의 제자들이 그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과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 (의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같이 있지 못했지만,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깊은 관계로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 깊고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말씀하셨던 명령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영화”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화(glorification)”는 그의 십자가(특히 요한복음 3:14; 8:28; 12:32 절의 “내가 들리면”이라는 문장을 유념)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이어지고 승천으로 끝난다(17:5).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때에 비로써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들의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올라 가셨고(14:1-3),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비로써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16:5-14).

누가는 사도행전 1:9-11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 후에 40일 후에 일어났다(사도행전 1:3).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떠나는 장면까지 언급했다(누가 24:50-53).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사역이 끝났음과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첫 제자이자,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첫 사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다. 왜냐면, 그 당시의 유대법과 문화에서는 여자의 증언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선택은 그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건설되는 왕국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큰 기쁨으로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부활사건은 마치 추리소설과 같다. 질문: 재미있고 흥미로운 추리소설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나? 몇 가지 대답들을 적어보자. (답: 흥미로운 제목, 사건배경, 등장인물, 줄거리, 위험과 의문점, 해결과 결론)

이런 요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부활사건의 요소들임을 설명한다.

학습인도

2. 먼저 “사건배경” 이라고 칠판에 쓴다. 그리고 그 옆에 “언제, 어디서” 라고 쓴다. 요한복음 20:1 절을 읽고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 다음, 한 명을 지목해서 2-5 절을 읽고, “등장인물” 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한 명을 다시 지목해서 마가복음 16:1-3 절을 읽고 추가인물들의 명단을 파악한다. 학습공과의 “그냥 밖에 서있다.” 의 내용을 참조해서 왜 요한은 다른 여인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자.

3. 한 명을 지목해서 “유대인의 장례법” 이라는 글을 읽도록 한다. 질문: 이 글의 내용이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알게 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4. “줄거리” 라는 단어를 쓰고 요한복음 20:6-10 절에서 소개되는 사건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자. 그 다음, “의문점” 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음을 질문한다. 이 사건의 어떤 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는가?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는 것,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 시체가 입고 있던 옷이 곱게 접혀서 있음.)

5. 학습공과의 질문 1 번을 나누어보자. “만약 당신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빈 무덤을 봤다면, 당신은 즉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었겠는가?” 이 사건의 배경을 8-9 절을 통해 설명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자. 질문: 언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는가?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부터...)

“제목”이라고 쓰고 다 함께 이 멋진 추리소설의 제목을 지어보자.

6. 모두 요한복음 20:11-18 절을 읽고 그 외에 등장하는 인물과 줄거리, 그리고 사건의 의문점들을 더 찾아보자. 그리고 이 사건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마리아는 혼자 무덤에 남는다. 천사의 등장. 예수님의 등장과 그를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 나중에 주를 알아본 마리아. 그리고 그녀를 다른 제자에게 보내신 예수님)도 마저 적어보자. “해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사건의 해결은 어느 구절에 등장하는지 질문한다 (20:16 절). “결론”이라는 마지막으로 쓰고 모두 함께 요한복음 20:19-20 절을 읽어보자.

적용격려

7. “실천에 옮기다: 실습”이라는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 글에 소개된 몇 가지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칠판에 적어본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 부활사건은 예수님을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어떻게 차별화 시켰는가?
- 왜 우리는 기쁜 맘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 우리의 가족이 죽었을 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위로를 주는가?

8. 찬송가 “살아계신 주”를 같이 부르면서 성경공부를 마친다.